OCT 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42-943 1982년 10월 1일(금) & 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October 1 & 2, 1982

트루도, 2차 개각
각료 10명 자리바꿈

◆럼리 상공장관

◆그레이 재정위원회 장관

(오타와)피에르·트루도 연방수상은 30일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 도날드·존스톤재정위원회장관(President, Treasury Board)을 경제개발장관(Minister of State for Economic Development)로 전임하고 헙·그레이상공장관을 존스톤후임으로 임명했다.

이날 개각은 트루도수상의 제2단계 내각개편으로서, 지난10일에 있은 제1단계개각서는 4명의 장관이 자리를 바꾸었다.

10명의 각료가 경질된 이번개각도 각료들간의 자리바꿈에 불과할 뿐 현각료가 완전 탈락되거나 신진이 기용되지는 않았다.

경제민족주의자인 그레이장관이 강력한 경제기관인 재정위원회장관으로 기용된것은 기업인들의 요구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루드의 개각은 신경과민 투자가들이 원하는 인물을 경제관계 부서에 재배치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했다.

트루도수상의 3단계 개각의 마지막 개각도 불원간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개각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기용될것으로 정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기용된 장관은 다음과 같다.

– 전임 장관 명단 –

(괄호안은 전직)

- ●도날드·존스톤: 경제개발(재정위원회)
- ●헙·그레이: 재정위원회(상공장관)
- ●벗·올슨: 상원원내총무(경제개발)
- ●제랄드·레간: 무역(체육)
- ●서지·조열: 주정부등 담당(무임소)
- ●찰스·라포인트: 외부관계(소기업)
- ●윌렴·롬프키: 소기업·관광(국고수입)
- ●피에르·드·방: 국고수입(외부관계)
- ●레이·페로 체육(상원원내총무)

음주 호흡테스트 합법
고등법원 찰스판사판결 엎어

온타리오고등법원은 음주운전자의 호흡테스트(Breath test)가 헌법상의 인권조항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8일 3명의 판사들의 합의심인 제3심에서 고등법원은 브라포드에 사는 마디아스·알스머씨는 법정허용량이상의 알콜을 섭취했다고 인정 유죄판결을 내렸다.

알스머씨는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공소(Appeal)제2심에서는 운전시와 호흡테스트 중간 너무 많은시간이 흘렀다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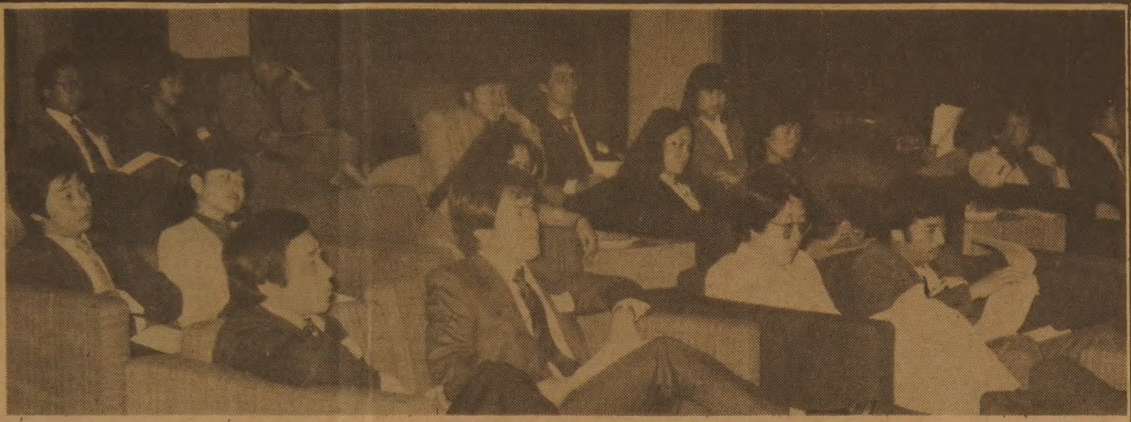
검찰측은 이에 항소,이날 제3심을 받았다. 알스머씨는 호흡테스트의 시간지연과 또 찰스판사의 호흡테스트 인권침해조항을 들고 나왔으나 고등법원의 인정을 못받았다.

온타리오지방법원의 찰스판사는 지난5월 음주운전자의 호흡테스트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침해한다고 무죄판결을 내렸었다.

이로써 온타리오고등법원은 찰스판사 호흡테스트 위헌판결을 뒤엎어 음주운전재판에서 검찰측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온타리오주의 음주운전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법정 소식통들은 말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5%		12%
90일	13%		12.5%
180일	13. 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25일 한인대학생동창회를 발족시킨 온타리오 대학교 졸업생들—한인사회에 좋은 활력소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대학출신 이민 1.5세대들
대학 동창회 발족
교민사회 활력소 기대

장래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1.5세(어릴때 이민, 캐나다교육을 받은 세대)의 모임인 한인대학생회 동창회(가칭)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지난 25일 저녁 구 토론토중앙도서관에서 모인 30여명의 온타리오주 대학출신 젊은이들은 창립총회를 갖고 구엘프대학출신의 윤주석씨를 회장으로 세네카출신 김신옥양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온타리오주에서 대학1년이상을 수료한 교포들을 대상으로한 이 모임은 교포들의 단결과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취업지도등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초청연사로 나온 유재신박사(맥마스터대학 졸업, 토론토대교수)는 "한국인은 개개인이 우수하나 강한 단결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동창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조한철박사, 윤여화씨(토론토약대 졸업)등이 참석, 동창회창립을 축복해 주었다.

초청연사들의 축사에 이어 회원들은 회장선거에 들어가 동창회창립때 부터 수고가 많았던 윤주석(구엘프대학 졸업)씨를 초대회장에 선출한뒤 부회장에 김신옥양(세네카졸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고 끝이어 15명의 이사진을 선임할 이사선임위원으로 최기환(토론토대학), 장영(토론토대학), 박성수씨 (토론토대학) 3명 을 뽑았다.

이날의 창립총회가 있기까지는 9개월의 긴시간이 필요했다. 대학생그룹 실학모임에서 동창회 필요성이 논의된후 금년 1월15일 처음으로 김의명씨, 유재신박사등 7-8명이 모여 동창회창설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총회직전까지 10차의 모임을 갖고 약70명의 명단을 파악, 일일이 초대장을 보내면서 회칙준비등을 갖추었다.

이 대학생회 동창회의 모체는 역시 온타리오한인대학생회(KUSA: Korean University Student Association)였다.

토론토한인사회에 각종 동창회가 많으나 대부분이 한국의 학교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 1세의 모임이었다.

지난 7월에는 핀치부근의 에머리고등학교 한인고동학교 동창회가 출범, 캐나다학교출신 한인동창회 1호가 탄생했다.

이번 한인대학생회는 온타리오의 전 대학을 대상으로 범위는 넓고 현재 약 1백명이상의 한인들이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으로 대학을 졸업할 회원을 포함하면 숫적으로 계속 불어나면서 교포사회 최고지성의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순금화상품 대리점 귀구선물
☎ 534 9977.7791 620A Bloor St. W.

社 告

해방37년이 넘었으나 「독립관」이 없읍니다.

소름끼치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음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금 액 : 다소불문
기 간 : 1982년 10월말까지
보낼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 (416)533-2361
※수표작성(Payable to…)은 The Korea Times앞.
※겉봉이나 수표에 「독립기념관」기금」이라고 쓸것.
◉폐사는 일정금액이 모이면 서울본사에 송금하며 기증자 명단은 토론토 한국일보및 서울 본지에 게재됩니다.

★모금상황(29일 현재)
소계 : $50(최성태 초대 체육회장)
누 계 : $570

– 토론토 한국일보사 –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개업 1 주년기념 영업안내

오는 10월6일로서 저희 은행은 개업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간 교포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짧은 시일내에 확고한 영업기반(자산규모 4천만달러)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서어비스내용을 대폭 개선키로 하였사오니 배전의 애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82. 10. 6.

아 래

※캐나다금융기관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보장합니다.
※유리한 조건의 주택모기지(Mortgage)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Car Loan)을 취급합니다.
※캐나다 세이빙스본드(Savings Bond)를 판매합니다.(10월중예정)
※야간예치함(Night Depositor)를 설치합니다.
※업무를 전면 컴퓨터화합니다.(현재 70% 실시)

영업내용
예금업무 :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및 기업당좌예금, 저축예금
대출업무 : 사업자금대출, 무역금융, 일반 소비자금융, 주택모기지, 자동차 구입자금대출, 적금대출, 당좌대월
수출입업무 : 신용장 개설및 통지, 선적서류매입
송금업무 : 전신송금, 우편송금, 모니오더
기타업무 : 투자·세무 상담

직원채용안내
나날이 성장하는 저희 은행에서는 사세확장에 따라 유능한 여자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력서와 사진을 보내주십시요.
은행경력이 있으신 분은 우대합니다.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 : 364-2890

지 점
627 Bloor St. W.
☎ : 533-8593

※캐나다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더욱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대규모 청소년 예술제

예술로 엮어질 젊음의 광장

토론토의 교포 청소년들이 보람을 갖고 한자리에 모여 맘껏 즐기고 포부를 펼 광장을 토론토한인회가 마련, 「청소년예술제」를 연다.

15년 이곳 한인이민사에서 1.5세(청소년)들의 총체적 첫 모임이 될 이 젊음의 축제는 11월 첫토요일(6일) 역대 캐나다 미스코리아대회로 이름난 센추럴공업고교(Bathurst×Harbord)에서 열린다. 티켓 $5, 노인 $3.

이 행사는 한인양로원 기금마련 자선예술제로 거행된다.

10명의 준비위원은 매일같이 알찬 예술제를 치르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의 레파토리는 1)촌극및 코메디「 즈·코리아 선발대회」(10명 등장), 2)음악-한인Y합창단, 등불중창단, 한인교향악단중 실내악 연주, 기타를 곁들인 노래-유만식·권혁일·이웅건·이인배·Mr.강, 플룻-주정희, 클래식기타-유호석, 3)무용-김용순무용학교생들 출연, 4)특기자랑-즉흥적으로, 5)문예작품 자작낭송-「구름다리」멤버들.

이상 모든 프로는 「TV한국」에서 녹화, 추후 방영된다.

어린자녀 때문에 입장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주최측은 현장 별실에서 베이비·시터를 해드리니 자녀동반, 많이 구경 와달라고 한다.

◉후원 : 토론토총영사관·대한체육회지부·한국노년회·한국일보사·민중신문사·코리언저널사

◆청소년예술제 준비위원

위원장 : 서만수

위원 : 유만식·서선희·임효신·정태교·이성희·조태호·윤주석·김승배·박성민

감독 : 김승배·정태교

MT : 이성희

음악 : 유만식

무대장치 : 정광호·김명세

안내 및 정리 : 이영희

연극담당 : 최광식·이인배

포스터 : 조충형·엄혁

프로그램 : 조태호·임효신

밴드 : 이덕만(리더)·송피터등 5명

강간피해자 외면 당해

의사들, 처리과정 복잡 꺼려

메트로·토론토의 병원의 사들은 강간피해자의 치료를 대부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 예로, 메트로경찰이 26일새벽 강간을 당한 21세의 여인을 험버·메모리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는 2시간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토비콕에 사는 이 주부는 웨스톤에 있는 자동차 파킹장으로 끌려가 입고있던 옷으로 묶인채 강간을 당했었다.

험버·메모리얼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데리고 간 경찰은 다른 병원에도 몇군데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기자들과 만나 "내 아내는 실신되어 있는데도 의사는 할일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진료를 해주지 않았으며, 기다리다 지쳐 경찰이 여러 다른 병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강간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자 다른병원에 걸어보라고 하더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험버·메모리얼병원 관계자는 병원기록부에 이 여인이 새벽2시30분부터 4시45분까지 2시간이상 기다린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것은 병원규정에 어긋남으로 해당의사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시간에 응급환자담당 의사가 한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당한 여인을 검사하고 경찰이 요구하는 증거물을 수집하기에는 "너무나 바빴다"고 변명했다.

강간피해자를 검사할 때 의사들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빙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에서 지급한 소정의 강간검사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규정대로 검사를 하는데는 최소한 1시간이상 걸리며 의사는 그 대가로 150불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험이 없기때문에 강간피해자를 맡아 처리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경찰간부는 의사들의 강간피해자 외면에 언급, 경찰이 강간피해자를 검사해 줄 의사를 찾는데 애를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하면서 "법정에 제출할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노쇠방지 한국인삼

(서울30일 = 연합)늙기를 원치않은 사람은 한국산 인삼을 많이 먹으라.

최근 한국의 식품공학자가 영약으로 알려진 한국산 인삼이 노쇠현상을 막아준다는 새로운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연구위원인 최진호(41)씨는 최근 경희대학교「한국인삼의 노쇠방지 효능에 대한 연구」라는 박사논문을 통해 실험용 흰쥐에 인삼을 계속적으로 투약한 결과, 노쇠현상을 이르키는 생리변화가 중지되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신비적인 약」으로 알려진 인삼에 대해서는 그 효능에 대한 논문이 국내외서 많이나와 있다. 인삼은 특히 혈압정상, 항암작용, 당뇨병환자의 혈당량감소, 피로방지, 정신안정, 간기능정상화, 방사선방지, 정력증강등에 좋은것으로 나타났다.

고 민 동 정

◆최성태=초대 체육회 회장을 지낸 최씨는 최근 "구설수에 올랐다"고 분개했다. 이유인즉 어떤 연고에서인지 몰라도 자신이 이번 미국 밀입국시도 사건에 연관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 현재 나이트 클럽 오리엔탈·팔레스 매니저로 있는 최씨는 "최성태가 아무리 죽는경우를 당하더라도 돈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정담배건, 부정우표건 또는 미국 밀입국 이건간에 사회의 지탄받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형태=전싸이클 국가대표선수였던 정씨는 부인이 몸져 눕는 바람에 심·신이 불편했다. 현재 영·스트릿×쉐퍼드·스트릿 근처에서 도너츠숍을 경영하는 정씨를 크게 도와온 정안나여사는 간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몸이 부어 수개월간 웰스리병원에 입원했다가 일주일전 퇴원, 자택서 가료중이다.

◆강환규=부인 이영숙여사가 1주일전 세인트·마이클병원서 첫아들을 순산, 1남1녀의 아버지가 됐다.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 전직 국민학교 교사였던 이여사는 토론토한국일보직원으로 입산부 휴가중이다.

결 혼 축 하

신랑 : 정충수씨 차남 병필군

신부 : 나일수씨 4녀 숙희양

때 : 1982년10월2일(토) 정오

곳 : 한인침례교회 720 Ossington Ave, Toronto

주례 : 홍신웅목사

서울식품 증설 해밀톤지점 개설

토론토의 서울식품은 10월 1일 해밀톤지점을 개업했다.

벌링톤, 오크빌, 쎄인·캐터린, 키치너, 나이아가라지역 교포들은 한국식품을 사기위해 토론토까지 나오는 고충이 덜어지게 됐다.

이로써 서울식품은 토론토에 동부(367 Pitfield Rd. 291-8317), 서부(1391 Weston Rd. 243-9544), 그리고 해밀톤(128 Brucedale Ave. E. 385-1485)까지 3개의 연쇄점을 갖게 되었다.

새 이주자를 위한 안내

토론토의 이모저모 4

현행정구획 67년 탄생

1904년 대화재로 빌딩104동 전소

역사적인 해

1793 : 존·그레이브스·심코총독은 토론토를 무디·요크(Muddy York)로 개명했다. 요크는 요크공작의 이름에서, 무디는 도로가 진흙투성이 이기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심코총독은 또한 부두에서 북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홀랜드·렌딩(Holland Landing)까지의 거리이름을 당시 영국 국방장관이였던 조지·영(George Yonge)경의 이름을 따서 영·스트릿이라고 명명했다.

1807 : 토론토의 중등교육 창시인 토론토·그래머·스쿨(Toronto Grammar school)이 개교되었다.

1813 : 무디·요크가 점차 성장해가자 두려워진 미국인들이 이에 불을 지르려 했다. 이때가 1812-14년의 전쟁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인들은 의회건물을 불사르는데 성공했다.

1827 : 스트라찬(Strachan) 주교가 온타리오주 첫 고등교육기관인 킹스·칼·지(King's College)를 설립했는데 이학교가 후에 토론토 대학교(The University of Toronto)로 성장했다.

1834 : 가장 뜻깊은해 토론토시의 인구가 9,254명에 이르고 시로 승격한 해이다. 초대시장은 윌리암·리온·멕켄지였으며 그가 사용하는 저택이 지금도 82본드·스트릿에 서있다. 당시 토론토시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베더스트·스트릿, 동쪽으로는 팔러먼트·스트릿, 남쪽으로는 온타리오호, 북쪽으로는 던다스스트릿이였다.

1904 : 토론토에서 최대의 화재가 일어난 해. 4월19일 웰링톤·스트릿에 위치한 E. and S. 큐리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발생된 이 화재는 104동의 빌딩을 불태우고 2주일만에 겨우 진화되었다. 이화재로 인해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산피해액은 1천3백만달러에 달했고 5천명이상이 일정기간동안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

1910 : 상수도물이 처음으로 소독처리된 해

1911 : 토론토수력전기시스템(Toronto Hydro Electric System)이 설립된해

1912 :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이 개관되고 나이아가라폭포에 수력발전 시설이 처음으로 설치된 해

1916 : 온타리오 절제법(Ontario Temperance Act.)이 공포된 해

1927 : 절제법이 해제된 해

1954 : 토론토와 12개 자치지역을 합해 메트로·토론토를 탄생시켰으며 TTC가 5천만달러를 들여 건설한 영·스트릿지하철(에글링턴에서 프론트·스트릿)을 개통한 해. 당시 요금은 25센트에 3장이였다.

1965 : 새로운 시청 건물이 개관된 해

1966 : 동·서 지하철이 개통된 해

1967 : 토론토시와 5개 자치구(이스트·욕, 이토비콕, 노스·욕, 스카보로, 욕)가 탄생한 해

1971 : 온타리오·플레이스(Ontario Place)가 문을 연 해

1975 : 세계에서 가장 높은탑인 CN타워가 준공된 해. 높이 553미터(1,815피트)

작가 101명 기금 파티 참석

"캐나다 문학을 키우자"

마가렛·로렌스, 레오날드·코헨, 팔리·모왓 등

70년대 들어 캐나다 지식인들간에는 캐나다 문화를 북미문화의 일부가 아닌 미국문화와 별도인 『캐나다문화』로서 정립하자는 움직임이 각 분야에서 일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세찬 분야중의 하나는 문학계.

29일밤 토론토·쉐라톤호텔에서는 캐네디언작가 101명이 모여 캐네디언작가의 작품활동을 키우기위한 작가 장려기금(Writers Development Trust)을 위해 좌석당 $250짜리 파티를 가졌다.

이날 파티에는 마가렛·로렌스, 피에르·버톤, 팔리·모왓 뿐 아니라 최근 「오바상」으로 각광을 받은 일본계 조이·코가와, 심지어 마가렛·트루도까지 참석, 출판업자, 기업인, 언론계인사, 비평가들과 캐나다문학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The Night of One Hundred Authors"라고 불리는 이날 파티에서 가장인기를 끈 "The Diviners","The Stone Angel"의 원로작가 마가렛·로렌스는 "이런 모임은 캐나다문학을 풍성하게 해주는 촉진제가 된다"고 흐뭇해 했다.

이날 파티의 의의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은 프랜시스·폭스 연방체신장관의 논평으로 그는 "오늘 이 모임은 캐나다문학이 훌륭히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1949년에만 해도 캐나다 출판계는 한해에 20권의 책밖에 펴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그 이후의 성장은 눈부시다"고 말했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저명한 캐나다작가들은 로버츠·데이비스, 앨리스·먼로, 티모디·핀들리, 피터·뉴먼, 촬스·템플톤, 브라이언·무어, 촬스·리치, 로밧·딕슨, 레오나트·코헨, 몰리·캘러건, W. O. 미첼, 바바라·애미얼, 돈·해론, 벤·익스, 피터·트루먼, 제임스·히스톤, 로버트·위버등이었다.

◆마가렛·트루도와 피에르·버튼이 29일 쉐라톤호텔의 The Night of One Hundred Authors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캐나다 문학을 키우기 위한 이같은 모임은 캐나다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부이다.

◆성장으로 파티를 빛내준 작가 팔리·모왓. 그는 본지에 원재훈씨 번역으로 연재되기도 했던 소설 「Deer People」등 수많은 에스키모 작품을 썼다.(오른쪽)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영화「인천」의 치열한 시가전 장면. 파거의 현장을 정확히 못 옮긴 흠이 군데군데 보인다.

새 映画 「인천」

6·25동란때 쓰라린기억 되살아나고…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영화「인천」은 지극히 평범한 전쟁영화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인으로서는 한번쯤 가볼만하다. 그것은 한국인 모두의 가슴에 쓰라린 기억의 편린을 박아놓은 6.25동란을 한번 더 돌아보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영화관의 대문짝만한 스크린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감상이 젖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데 더 큰 뜻이 있는지도 모른다.

통일교교주 문선명씨의 돈으로 만들었다고 해 해꽃이를 당하고 배급사를 못찾아 절절매다 MGM/UA 측과 협상이 이뤄져 뒤늦게 햇빛을 본 「인천」을 보면서 외국인에게 한국의 비극적 역사를 똑바로 알리고 라스트신에 대형태극기를 올린 문선명씨를 생각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영화는 파거의 현장을 정확히 화면에 옮기지 못한 점이나 역사를 듬성듬성 뽑아 재현한 엉성한 구성등 영화예술 자체로선 스산하기 짝이 없는 작품이다.

내용은 30대후반의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6.25동란. 물밀듯이 38선을 넘어 내려와 남쪽을 거의 다 점령한 북괴군을 섬멸키 위해 맥아더(로렌스·올리비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다. 문제는 심야에 좁은 해협을 따라 2백50여척의 함선이 진입하려면 길잡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길잡이 구실을 할 오래전 사용이 중단된 등대를 탈환키 위해 미해병대령 벤·가자라와 남궁원의 특공대가 종횡무진 요란한 총격전 끝에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양념을 넣기 위해 벤의 아내로 재키·비셋이 나오고 한국인 연인 입양으로 카렌·칸도 등장한다.

이낙훈과 이일웅도 나오고.

대가 올리비에경의 여우같은 맥아더역은 훌륭하나 다소 가볍고 전투신도 박진감 있으나 장면의 연결이 이가 안맞아 치졸하다. 1백만달러어치의 경품추첨권은 입장시 종업원에게 요구해야 준다. 어쨌든 박수를 치고 나왔다. 테렌스·영감독. 등급 PG.

새 예루살렘 교회

창립 1주년기념 성회

강사 : 데이비드 · 메인스목사(David Mainse)

통역 : 김승환목사

강사소개 : 데이비드 메인스목사님은 캐나다전역과 미국등지에 방영되고 있는 "100 HUNTELY STREET"TV프로그램(GLOBAL TV : 매일 오전9시30분~10시30분)의 창설자이자 사회자입니다. 그외에 "CROSSROADS"와 어린이프로그램 "CIRCLE SQUARE"등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테레비선교 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 주심으로 TV방영하는 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은 특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청합니다. 특히 중·고등·대학생들은 많이 참석키 바라며 꼭 오셔서 모두 구원의 체험과 성령세례 받는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회시간이 토요일(10월9일)하루만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5 GRENOBLE DR. DON MILLS)

☎ : 429~2685 · 429~1430

◉교회약도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 정거장에서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있는 푸레밍돈·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회자 김승환및 교우일동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햄버거경쟁 법정으로

맥도날드, 버거킹상대 訴訟

거짓·오도된 선전 放映중지를 "2천만弗짜리 TV「워퍼」광고"

(마이애미)햄버거 경쟁 선전이 법정에까지 번졌다.

원고와 피고는 북미 최대 규모의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와 넘버투의 위치에 있는 버거킹.

맥도날드회사는 지난주 버거킹측의 2천만달러짜리 새 TV광고가 「거짓이며 오도선전」이라고 주장, 방영금지 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TV선전은 버거킹측의 간판 햄버거격인 「워퍼」가 맥도날드의 「빅맥(Big Mac)」보다 맛있다는 내용으로 실제 소비자들을 출연시킨 것이다.

광고의 요지는 맥도날드의 튀긴(Fried)햄버거보다는 버거킹의 불에 구운(Flame-Broiled) 햄버거가 훨씬 낫다는 것.

버거킹측은 이 광고의 맛 테스트는 이에 응한 소비자들이 이것이 광고인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는채 아주 공정하게 행해졌으며, 그 결과 「워퍼가 이겼다」고 해명하고있다.

그러나 맥도날드측은 버거킹의 「워퍼」는 먼저 스팀으로 익혔다가 서브 당시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넣어 덥히는 것이 보통이라고 반박했다.

맥도날드는 법정에서 「빅맥」등 햄버거가 어떻게 조리되는지 정확히 설명치 않았는데, 한 지역 매니저는 「프라이」가 아니라 굽는 쪽에 가까운 그릴(Grill)이라고 주장했다.

◆「빅맥」대 「워퍼」의 법정싸움이 붙었다. 넘버원 규모의 햄버거 맥도날드가 넘버투 규모 버거킹의 새 광고를 「거짓」으로 몰아 소송을 제기하자 버거킹회사는 미녀들과 「워퍼가 빅맥을 이겼다」는 간판을 내세워 약을 올리고 있다.〈마이애미〉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78〉

얼굴없는 死者 ②

檢屍醫는 8개의 토막시체를 맞추고…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색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발송자의 이름이 똑같이 오세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쉬웠던 것이다.

먼저 부산역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잘려나간 몸통부분이 발견되었다. 이어서 여수역에서 양쪽 팔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대구역에서 허벅지 두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날아든것은 그로부터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그 이상은 더 발견되지 않았다.

대전·천안·부산·대구·여수 등 5개 경찰수사데스크의 경비전화가 불리나케 울렸다. 다른지역의 경찰수사관들은 한숨 돌렸지만 문제의 5개지역의 수사팀들은 귀가를 포기한채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저물었을 때 서울의 센터로부터 두번째의 지령이 하달되었다.

『신체의 각부위가 발견된 지역의 수사 책임자는 각부위가 상하지 않도록 냉동상태하에 즉시 그것을 센터로 운반해 올것.』

지령을 받은 각 지역의 수사책임자들은 토막시체를 싸들고 밤새 차를 달려 서울로 올라왔다. 그것은 결코 유쾌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특히 머리통을 가져온 대전팀은 꿈에 볼까 무섭다고하면서 넌더리를 치기까지 했다.

법의학 관계의 전문가들도 입회한 가운데 경찰병원 해부실에서 시체의 조립이 시작된 것은 12월12일 새벽 3시경이었다. 해부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토막은 모두 8개였다. 검시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맞추어나갔다. 먼저 머리를 놓고 그밑에 몸통을 놓았다. 잘린 목부위가 딱들어 맞았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다음에 어깨 부분에 팔이 역시 빈틈없이 들어맞았다. 이어서 허벅지와 다리가 놓여졌다. 이윽고 검시의가 허리를 폈을때 거기에는 한 건장한 사내의 시체가 누워있었다.

朴男 그림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악했다.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시체를 유기한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법의학 관계의 전문가들이 시체를 부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동안 수사요원들은 센터로 몰려와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살인과를 전담하고 있는 살인사건 수사의 베테랑들이었다.

전국 경찰에 살인과가 설치된것은 1년 전이었다. 급증하는 살인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노련한 요원들과 최신장비의 도입, 그리고 공조체제의 확립 등으로 과거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특히 엄격한 공조체제의 확립은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고 있었다.

물론 과거에도 공조체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말뿐이지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드물었다. 각자가 공명심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협조보다는 오히려 배타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그 바람에 범인 검거율은 날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그럴수 밖에 없었다. 전국의 일일생활권화로 범죄는 가속화되고, 광역화되었는데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력이 미처 따라잡지를 못하니 자연 검거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I'LL KEEP MY EARS OPEN

얼마전 어느 교포 한 분이 필자에게 찾아와서 미국 식품점(grocery store)를 하나 하고싶은데 하는데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다. 마침 아는 미국인 친구가 대규모의 supermarket을 경영하기에 「내 친구가 식품점을하나 사려고 하는데 좋은 자리가 나면 알려달라」 My friend is looking for a good money marking grocery store. If you hear of something, let me know.라고 했더니 O.K. I'll keep my ears open.라고 대답했다.

I'll keep my ears open.이란 「귀를 곤두세우고 다니겠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또한 ears대신에 eyes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개 전치사 for와 같이 쓰인다. 예를들어서 「파란스웨터를 입은 사내 아이가 눈에 띄는지 살펴 달라」고 할때 Keep your eyes open for a boy in a blue sweater, 대답으로 「그런 아이가 지나가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피겠다」는 I'll keep my eyes open for him이 된다.

A : Hi, Sue. Did you graduate this year?
B : Yes, and now I'm looking for a job.
A : As a secretary?
B : Yes. If you hear of something, let me know.
A : Sure. I'll keep my ears open.
B : Thanks.

A : 안녕 쑤—우. 올해 졸업했지?
B : 네. 그래서 지금 직장을 작고 있는 중이예요.
A : 비서직 말인가?
B : 네.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 주세요.
A : 그렇게 하지. 귀를 기울이고 다녀야겠군.
B : 고맙습니다.

• graduate : 졸업하다.
Ex. He graduated from Oxford. 그는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했다.
look for : —을 찾다.
let me know : 내게 알려달라.

애기의 샘

재수라는 것

어떤부인이 횡단로아닌 큰길을 건너다가 덤프트럭 밑에 깔리고 말았다. 길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빙 둘러 쌌다. 그리고 자키를 써서 차를 들어올리고 밑에깔린 부인을 꺼냈다. 부인은 희한하게도 상처하나 받지않고 멀쩡했다.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이다.

거기에 만삭이 된 배를 한 천격(賤格)스런여자가 다가와 이렇게 소리쳤다.

『부인께선 정말 재수 좋군요. 20분동안이나 덤프차밑에 깔려있었는데도 멀쩡하니만예요. 난 단5분동안 덤프트럭 운전사밑에 깔렸을 뿐인데도 이꼴이 됐지뭐예요』라면서 제 큰배를 손짓했다.

애기의 샘

見解差異

어느 종합병원의 신경과에 30이 넘어보이는 올드미스가 찾아왔다.

의사는 그녀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던진끝에 말하기 거북한듯한 어투로 말했다.

『저어…아가씨는 혹시 이따금 한 상념(想念)에 사로잡히는 일이없나요? 즉 외설한 상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같은거 말이요』

『어머! 전 그런것 때문에 고민하는 일 같은거 없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전 고민을 안하는 대신 그런걸 즐기고 있거든요』

『…』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 오전10시~오후7시
토 : 오전11시~오후3시

三國志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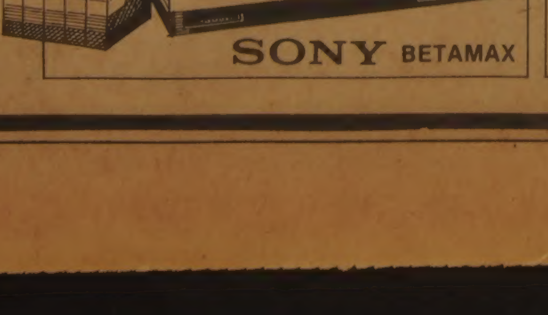
글·高羽榮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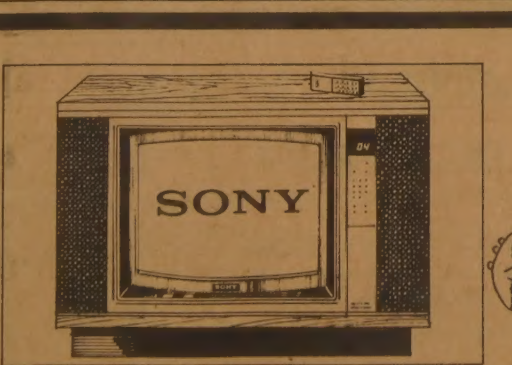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가게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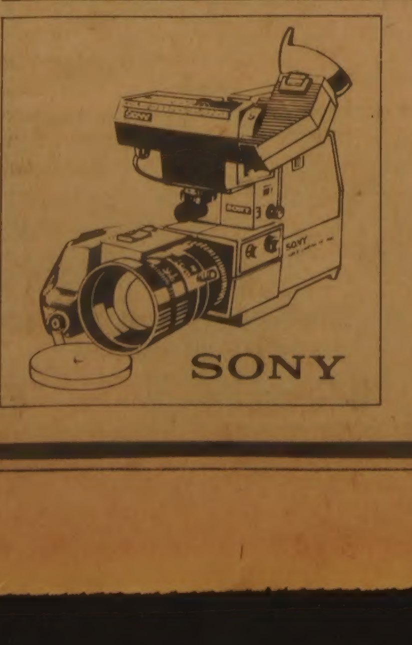
최고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죤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취급품목
Stereo • Television • 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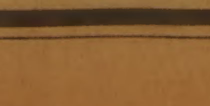
취급메이커
Sony • Luxman • Pioneer • Sansui
J.V.C. • Toshiba • Panasonic
Sanyo • A.K.G. • Sennheiser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 항 섭



이란, 大規模공세

이라크軍 61명 射殺

알 아랍水路·精油시설 파괴

【뉴욕UPI=聯合】이란군은 26·27일 양일간 주요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전개, 61명의 이라크軍을 사살했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의 회교게릴라들이 이라크軍의 병영과 탄약고를 폭파, 54명의 이라크軍을 살해했다고 이란관영 IRNA통신 27일 보도했다.

IRNA통신은 이란군이 26일 여명을 기해 샤트·알·아랍수로에서 포격전을 전개, 50명의 이라크군을 살해했으며 27일에도 이라크의 정유시설을 포격, 11명의 이라크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의 회교게릴라단체 페스마르가스(죽음의 전사)가 지난주 바그다드와 바그다드서부의 술라마니야에서 54명의 이라크군을 살해했다고 전했다.

IRNA통신은 이란군이 27일 샤트·알·아랍수로를 둘러싼 포격전에서 승리했으며 아바단항에 폭탄을 투하한 이라크공군기들을 격퇴했다고 말했다.

또 테헤란방송은 26일 수천명의 이라크군 포로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있는 게릴라들이 테헤란시내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정부의 전복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比두곳서 게릴라攻擊

경찰·민간인등 15명사망

【마닐라NNA=聯合】필리핀 북부 손로손주에서 26일아침 경찰과 민간인을 태우고 가던 지프 1대가 약40명의 무장괴한들로부터 수류탄공격을 받아 경찰8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

군소식통은 이들 사망자의 시체에서 파편이 발견됐다고 말했으나 무장괴한들이 필리핀공산당소속의 신인민군(NPA)대원들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보다앞서 25일에는 마닐라 동남쪽 320㎞지점의 이리가 시에서 세인트·앤터니대학의 ROTC무기고를 공격하던 14명의 NPA게릴라와 경찰이 총격전을 벌여 4명의 게릴라와 1명의 경찰이 사망했다.

3黨聯政협정 합의

西獨, 基民黨 콜黨首발표

【본AP=聯合】西獨의 3개 중도우익야당은 社民黨의 헬무트·슈미트수상을 몰아내고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완전한 정책계획에 합의했다고 3당연정을 추진해온 헬무트·콜 基民黨당수가 28일 발표했다.

콜당수는 이날회견에서 基民·基社및 自民黨등 3당지도자가 모여 27일밤 약6시간동안의 협의를 가진결과 이같은 연정구성협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라파트 내달訪蘇

아랍7國대표 同行

【다마스커스AP=聯合】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은 오는 10월중순 소련을 방문할것이라고 PLO의 와파통신이 27일 밝혔다.

와파통신은 이어 최근 모로코의 페즈에서 열린 아랍정상회담에서 구성된 아랍7개국위원회 대표들이 아라파트 의장과 동행, 크렘린지도자들에게 페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아랍측 결의안을 설명하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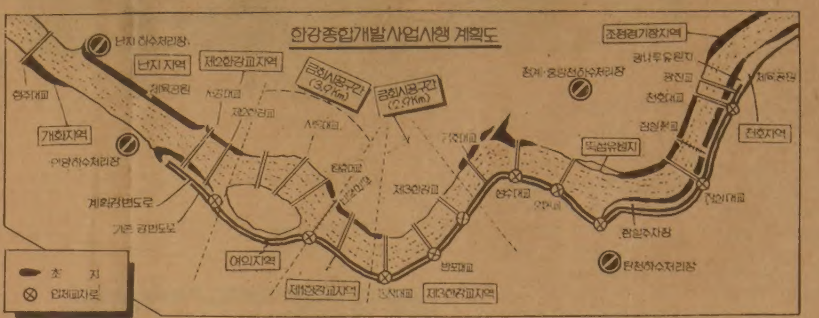
美, 팔難民村학살에 M16사용여부 調査

【워싱턴UPI=聯合】레이건 행정부는 팔레스타인난민 대학살사건이 자행된 한 베이루트 난민촌에서 美製 M16소총 탄약상자가 발견됐다는보도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앨런·롬버그국무성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팔指導者사엘 被擊

【베이루트AP=聯合】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군사지도자의 한사람인 사아드·사엘이 27일 베카계곡의 PLO진지를 순시하던중 매복병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레바논의 소리방송이 28일보도했다.

漢江종합개발 起工



金浦~岩寺洞36㎞에 低水路

85년까지 모두 3천4백83억원 投入

오염된 漢江을 「물의公園」으로 되살리기 위한 漢江개발사업이 시작됐다. ★관련기사10면

서울시는 28일상오11시 서울汝矣島 한강변고수부지 체육공원에서 全斗煥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를비롯 3부요인, 국정자문위원, 각계인사및 일반시민등 2만4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漢江종합개발기공식을 갖고 대역사의 첫발을 내디뎠다.

32분동안 진행된 이날기공식에서 全대통령내외는 丁來赫국회의장 국정자문위원 金埈成부총리 金聖培서울시장등과함께 漢江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발파버튼을 눌렀다.

오는 85년까지 4차년사업으로 계속될 이번사업은 총공사비 3천4백83억원을 투입, 金浦大橋~岩寺洞간의 전장 36㎞의 漢江구간을 10개공구로 나눠 ▲저수로정비 ▲강변도로 ▲고수부지조성 ▲하수처리(江南쪽)확충 ▲하수차집관거(下水遮集管渠)설치 ▲舟運계획등의 6대사업을 펴게된다.

이날 1차로 착공된구간은 제3공구(西江대교~元曉대교·3.9㎞)와 제5공구(銅雀대교~제3한강교 2.9㎞)이다.

이공사가 마무리되면 漢江은 50년대이전처럼 맑은 흐르는 시민의 강으로 되살아나 서울을 보다 풍요롭게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서울시는 소요사업비중 순수하게 漢江개발에 쓰이는 1천7백50억원은 전액 골재채취매각대금으로 충당되며 이를위해 경기南楊州郡渼沙里골재채취는 공정단된다고 밝혔다.

병행추진되는 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비 1천7백33억원중 50%인 1천39억원은 시비로 나머지 40%인 6백94억원은 차관으로메워지게된다.

한편 올해연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업자를선정, 착공할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이미 李相殷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사업평가위원단을 구성했으며 공사및 회계업무등 정산하며 채취골재량을 확인, 감리하기위한 용역감리단도 설치키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하수처리장건설을위해 내년상반기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방침을 세우고 그 법적보완조치로 기존의 하수도법에대한 개정안을 이번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수도사용료를 받게될경우 연간약 2백18억원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가정의 경우 수도요금의 30% ▲영업용은 50% ▲공장은 폐수1톤에 1백원꼴로 하수도사용료를 내야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전체사업구간 36㎞를 10개공구로 나눠 1차로 지난22일 지명제한입찰을 실시, 이번착공된것중 3공구는 現代건설에 1백62억원, 5공구는 주식회사 大宇에 1백44억3천8백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國土보전 民族의 大役事"

全대통령 致辭

全斗煥대통령은 28일『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害를 끼치며, 또 이를 復元시키는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가 하는것은 선진국의 例를 통해서도 잘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그러므로 우리는 성장과 개발을 위해 쉼없는 박차를 가하는 한편 우리의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도 이에못지않게 게을리 하지 말아야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汝矣島高水부지체육공원에서열린 漢江종합개발사업기공식에 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漢江을 종합적으로 다듬고 가꾸는 이사업은 민족번영을 달성코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을뿐만아니라 우리의 국토를 아름답게 길이 보전하고자하는 국민적興望이 담겨져있는 민족의 大役事』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이제우리는 필요와 便宜에의해 그동안 일방적으로 혹사하여왔던 漢江에 우리들의 정성을 되돌려 주어야할 바로 그때를 바야흐로 맞이했다』고 지적,『우리는 그러한 정성을통해 맑은江, 깊은물속에 온갖魚族들이 활개치며 뛰노는「살아있는 漢江」을 만들것을 다함께 다짐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漢江종합개발을 추진함에있어 漢江본래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한편 뻗어나는 國力에 상응하는 시설과 주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되고 멋과 便宜가 함께 갖추어 지도록 면밀한 배려를 해야하겠다』고 강조하고『이를 위해 각종 도시汚水등을 원천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는 문제와 漢江자체가 지니고있는 풍부한 水量과 骨材등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工費절감의 효과를 거두는 문제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美, 北傀공관원 追放검토

유엔駐在 3등서기관 美여인 強制추행 미수

【뉴욕支社=崔卜林기자】유엔駐在 북괴외교관에대한 추방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사건을 수사중인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경찰은 피해자가 흑인여교사이며 추방이 검토되고있는 북괴외교관은 吳모씨라고만 밝혔다.

유엔대표부의 북괴외교관 吳씨는 3등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계관에 의하면 吳는 뉴욕시근교 부촌인 웨스트체스터소재 트위웨의 으슥한곳에서 낚시중이던 흑인여교사를 갑자기 뒤에서 덮쳐들어 추행하려다 흑인여교사가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망쳤다는것.

이관계관은 吳의 범행현장에는 吳외에 유엔주재 북괴대표부소속 외교관 조준하와 강자룡등 2명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 吳는 때마침 범행장소부근에서 승마중이던 미국 주민에게 붙잡혔으나 외교관신분증을 보이면서 면책특권을 주장해 풀려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유엔주재 미국대사관 존·D·키 공보관은 유엔에 업저버 자격으로 와 있는 북괴외교관은 면책특권이 부여돼있긴 하지만 형사범죄를 저지를경우 처벌을 면하지 못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中共, 한반도安定 바라

스즈끼·中共수뇌 회담 분석

東北亞 안정도모路線 불변

中·蘇화해로 당분간어려워

해설

日·中共 국교정상화 1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北京을 방문중인 스즈끼(鈴木)일본수상과 趙紫陽중국수상과 가진 두차례의 수뇌회담에 이어 鄧小平 군사위주석, 胡耀邦 黨총서기와 각각 연쇄회담을 가진결과 中·蘇화해는 당분간 불가능하며 중공이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것을 다시확인했다.

사실 스즈끼수상의 중공방문목적중의 하나가 중공의對蘇외교정책과 對한반도정책의 변화를 타진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스즈끼수상은 27일에 열린 趙紫陽과의 第2차 수뇌회담 첫머리에『중공의 對蘇정책에 변화가 있는가. 중공은 中·蘇해빙을 전제로 소련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들고있는데 그구체적 조치는 무엇인가. 또이에 대해 소련이 응해올 가능성이있는가』등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대해 趙紫陽은『霸權주의에 반대하는 나라와 협력하여 소련에 대한다는 중공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中·蘇관계가 해빙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밝혔다.

일본은 이로써 美·日안보조약을 기축으로 日·中共관계 개선에 의한 東北亞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제까지의 외교노선에 큰변화를 가져오지 않아도 될수있게 됐다고 일본외무성측은 분석하고 있다.

趙紫陽은 또『북한이 현재 국내건설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군사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스즈끼수상에게 설명하고있다. 70년대이후 북한이 계속군사력을 증강시켜왔고 10만명의 기습특수부대를 양성하는데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전혀없는것으로 보아 東京의 북한전문가들은 중공이 북한을 움직여 긴장완화로 쉽게 이뤄지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있다.

이와함께 중공의 黃華외상은 사쿠라우찌(櫻內)일본외상과의 회담을통해 유엔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 철수안을 제출하겠다고 언명함으로써 엄격한 對蘇자세를보이기도했다.

어쨌든 스즈끼수상은 이번 中·蘇해빙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는 趙紫陽자신이 말한것처럼 좋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趙紫陽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中·蘇해빙문제에 대해 중공이 아주 문을 닫아둔것은 아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社會漫評

例年 民族의 大移動

地平線

추석이 가까와 오고있다. 추수감사의 뜻을 곁들인 한가위는 우리가 면면히 지키는 가장 즐겁고 푸짐한 명절이다. 이때 즐겨먹는 계절음식은 토란탕과 송편이다. 이밖의 절식을 든다면 호박시루떡과 인절미 밤단자 등속이 있고 음력10월에 들면 비로소 쌀에 붉은 팥을놓는 떡을 즐기게된다. ▼한말로 떡이라 하면 곡식가루를반죽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찌거나 굽거나 부치거나 띄우거나 쳐서먹는 음식을 이른다. 그런데 이떡에도 나라마다 특색이 달라서 육당 최남선은 중국은 밀가루를 주로굽는것이 흔하고 일본은 찹쌀가루를 주로하여 치는것이 보통이며 우리는 쌀가루로 찌는것이라 했다. ▼육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떡은 종류가 여러가지이나 그주종은 시루떡이고 여타의 떡은 시루떡에대한 보조물내지는 사치물이되는 감이있다고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관계가있는 굿이나 제례에서 떡은 반드시 오르지 않아도 시루떡은 반드시 오르는것으로도 짐작할수가있다. ▼시루떡이란 쌀을 물에 불려 가루를 만들고 이것을 시루에 넣어서 쪄내는 떡인데 여기에 감과 대추를 섞으면 감설기가되고 쑥을 넣으면 쑥설기떡이 되며 아무것도 넣지 않고 흰눈같이 정갈한것을 설기떡 내지는 백설기라 이른다. 백설기가 떡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셈이다. ▼떡에 대한 기록으로는 고려사 열전의 최승로전이 가장 오랜것의 하나인데 광종은 내도량(內道場)의 떡으로 걸인에게 시주하였고 신돈조에서는 돈이 부녀자에게 떡을 먼저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로미루어 떡은 고려시대에 이미 사회각층에 보급되어 일반화된 음식임을 알수가 있다. ▼다만 요즘에 제맛이나는 송편이 어느무렵부터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증은 아직 없다. 그러나 밝은 달빛 아래 아녀자들이 둘러앉아 송편을빚고 채반에 솔잎을 깔고 거기에 쪄서 솔내음이 물씬대는 것을 먹으며 맛보는 포만감은 이마에 땀흘려 한해 농사를지은 농군에게 걸맞은것이라 하겠다. ▼올해도 송편을 빚기 위한 떡방앗간은 붐비고있다. 추석날 쓰일 송편의 마련도 긴한 일이나 한가위에 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도 송편을 빚을수 없는 이웃에도 골고루 맛볼수있게하는 온정이 아쉬운 절계가 바로 지금인가 한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씨알한국인학교
특수 프로그램

★중등부 과 목 : 영 어 (캐나디안 정규교사가 지도함)
수 학 (Commodore 콤퓨터64 사용)
음악이론 (콘서바토리 시험을 위한것)
고전무용 (전문적인 레파토리 지도)
수업료 : 한 과목당 1년에 $140, 두 과목당 1년에 $260

★초등부와 유치부
과 목 :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태권도 무용, 스케이트와 축구(이상 8과목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영어, 수학은 캐네디안 정규 교사가 가르칩니다.
수업료 : 1년에 두 과목당 한학생 $180, 두학생 $350,
버스비 : 두대의 학교 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하실 곳은 ☎ : 441—2986 여정자 선생, 세학생 $450
9월20일까지 신청마감.
1년에 한학생 $135, 두학생 $260, 세학생 $350
시간과 기간 : 매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9월25일부터 내년6월까지
등 록 : 9월25일 개학날 당일 9시부터 등록 접수하며 위의 학비는 2번의 Post Date 수표로도 접수합니다.

TORONTO BOARD OF EDUCATION
씨알한국인학교
한국어 프로그램(무료)

★중고등부 초보반 : 1년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어를 깨우
중급반 : 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 이오니 꼭 이용해 주십시오.
★초등부 초보반 A : 1, 2학년으로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초보반 B : 1, 2학년으로 이미 공부한 어린이
중급반 A : 3학년 이상으로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중급반 B : 3학년 이상으로 이미 공부한 어린이
★유치부 유치반 4살 이상 어린이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e Ave. Toronto
시 간 : 9월25일 개학
매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12시30분까지 (2시간30분 수업)
학교버스 : 씨알학교 특수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성인영어반 (무료) : 토론토 교육국의 후원으로 발음과 단어, 읽기등에 중점을 두는 성인 영어반을 같은 시간에 합니다.

不安한 上陸

베이루트 再배치 平和유지軍

이스라엘軍 철수완료하면 PLO서 虐殺보복 가능성

美軍을 標的삼을지도

3國평화軍도「自衛전투」不辭태세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일원인 이탈리아공정대원 1명이 27일 대량학살사건이 발생한 베이루트교외 사브라수용소에서 초계임무에 들어갔다。폐허화한 난민촌앞에 서있는 3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호기심을갖고 이탈리아군을 바라보고있다。【베이루트27日 AP電送=聯合】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완전철수거부로 再배치가 잠시 지연됐던 美·佛·伊다국적평화유지군의 활동이 27일부터 본격화됐다.

베이루트항에서 이틀동안이나 이스라엘군의 완전철수를 기다리며 대기중이던 프랑스군 1천1백명과 이탈리아군 1천1백60명은「평화유지군의 조속한 배치」를 바라는 아민·제마엘레바논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아직도 베이루트의 전략요충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27일 베이루트에 진입, 처참한 학살이 벌어졌던 샤틸라와 사브라난민촌 주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난민촌수색에 나섰다.

한편 베이루트외항에 정박중인 美6함대 승선미군 1천2백명도 2~3일내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철수가 완료되는대로 작전구역에 배치될 예정으로있다.

3개국 평화유지군의 작전구역은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프랑스군이 학살현장인 샤틸라, 사브라난민촌등 서베이루트일원에, 이탈리아군은 칼레리 사만, 마크 미칠롱 베이루트 남서부 외곽지역을, 그리고 미군은 베이루트항구와 국제공항주변지역등을 관장할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미묘한 상황에서 평화유지군의 재배치가 시작되고 있는가운데 서방군사전문가들은 이번의 다국적평화유지군이 1차파병때보다는 훨씬 더많은위험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지적하고있어 앞으로의 또다른 사태발전에 낙관을불허하고있다.

미국및 나토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따르면 팔레스타인전사들의 베이루트철수라는 비교적 간단한임무를 단기간내에 수행했던 1차파병때와는 달리 이번 2차파병은 구체적인 체류기간조차 확정되어 있지않아 전번보다 훨씬 장기간이될것이 틀림없으며 베이루트지역및 북부레바논 시리아와 접경지역에 포진하고있는 PLO전사및 베카계곡에 주둔중인 시리아군의움직임등이 커다란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리아로 일단 철수했던 PLO전사들이 이스라엘군의 철수후 국경을넘어 레바논에 침투, 소규모 게릴라활동을 벌이거나 레바논정규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교도사병들이 기독교도들이 많은 장교층에대한 하극상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또다른 사태를불안요소로등장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하고있다。

물론 이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큰것은 PLO의활동재개 여부。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거의가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완료되면 PLO의 활동이 곧이어 재개될 것이란는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월1일 베이루트에서 PLO전사들이 철수했을때 그들은 각종 중화기들을 베이루트에 남겨둔채 빈털털이로 쫓겨났다。

그러나 시리아로 철수한 PLO전사들은 그동안 어느정도 재무장을 갖춘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베이루트지역에도 상당한 양의 탄약과 무기가 감추어져 있는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있는 것이다.

PLO가 군사활동을 재개할경우 그대상은 제1차적으로 팔레스타인난민학살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익팔랑헤당소속 민병대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레바논에서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재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한 레바논정규군이 이를 통제할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이고 보면 3개국평화유지군이 여기에 개입하게될것도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유럽의 분석은 PLO가 행동을 재개할 경우 그들의 목표에는 팔랑헤당소속 민병대뿐아니라 미군도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軍經원조를 해주었으므로 레바논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베이루트에 재파견된 美·佛·伊 다국적평화유지군이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美·佛·伊 각국정부도 잘 알고 있다.

美국방성의 캐토대변인은 레바논에서 또다시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없다고말하고 만일 폭력사태가 발생할경우 1차적으로는 레바논정규군이 이에 대처하겠지만그래도안되면미군도무기를사용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평화유지군의 자위와 민간인 보호를 위해 전투행위가 필요하다면 이를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다시 이 뼈아픈 상처를 치유하기위해 3국의 평화유지군이 상륙은하지만 과연 이들이「평온」을 되찾게 한뒤 귀국길에 오르게 될것인지 아니면 또다른예기치못한 事態에 휘말려들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아무도 모른다。

분명한것은 지난번의 1차파병때보다 훨씬 많은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화유지군의「不安한上陸」인것만은 틀림없다。【朴永喆기자】

訪韓한 南太平洋마리아나群島 테노리오 副知事

5분 인터뷰

"말만듣던 한국經濟 직접보고 너무놀라"

세계제2차 대전에서 日本의 敗亡을 가져온 南太平洋의 마지막 激戰地였던 마리아나群島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온 페드로·A·테노리오 副知事와 3명의 下院의원들이 1주일간의 日程을 끝내고 28일하오 떠났다.

미국의 신탁통치領으로서 北마리아나 聯邦을구성하고있는 사이판, 티니안등南洋群島에서 온 이들은 그동안 우리행정부와국회지도자들을 만났고 蔚山浦項및 慶州의 산업시설과 古蹟을 두루 돌아본뒤『말로만 듣던 한국의 경제발전을 직접 눈으로보고 매우 놀랐다』고입을모았다。

『2차대전때 숨진 한국인의 영혼을 위로하는 慰靈塔을 사이판 티니안등지에 세우는것을 계기로 한국을 알게되었다』는 테노리오 副知事는『한국인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예의바른 국민인줄은 미처 몰랐다』고 1주일동안의 방문중 받은 환대를 고마와했다。

사이판의 林占金회장등 韓人會간부 5명과함께 海外희생동포慰靈사업회(회장 李龍澤의원)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찾은 이들은『한국방문을 통해 경제발전등 많은것을 배웠으며 귀국후 여기서 배운 교훈을 유용하게 쓸것』이라고 다짐했다。

訪韓중 인상적인것은『한국민의 친절과함께 도시가 깨끗하며 사회가 잘조직화되어 있는것 같고 특히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테노리오副知事는『7일간의 訪韓기간중 경찰차를 본것은 6번밖에 안된다』고 놀라운표정을 지으면서『그렇게 적은 경찰력으로도 이처럼 질서가 잘 유지된다는것은 한국인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아니냐』고 反問했다。

『地下鐵과 도로건설, 고층빌딩건축등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경제발전의 규모를 直感할수 있었다』는 그는『中東등 세계각지에 한국의 건설기술이 진출해 있는줄알지만 우리도 앞으로 큰건설공사를 할경우 한국이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黃昭雄기자】

학부모 수필

일제 연필

올해 국민학교에 입학한 딸의 필통을 들여다 보니 연필이 두자루밖에 없었다。

요즘 며칠을 친정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기에 병원엘 함께다니느라고 준비물 챙기는것을 못돌봐준탓에 이지경이 되었다。1학년짜리는 그납 그납 엄마가 준비물과공부를 돌봐주지않으면 안된다。

연필을 두자루쯤 더깎아서 넣어주려고 책상서랍을 열고 새 연필을 꺼내다가 못보던 연필하나가 있기에 자세히보니 일제연필이다。한윤봉이라곤 일제를 사준적이 없기에 애를 불러서『너 이연필 어디서났니』하고 물으니 애는태연하게『엄마 그연필은 인권이가 자기아빠가 사우디에서 사온것인데 일제라고 하면서 나쁜놈들 거니까 안쓴다며 버린것을 내가주워온거야』하는게 아닌가。

왜 남이버린 것을 주워왔느냐니까『일본사람들은나쁜사람이고 이연필도 나쁜지만 그렇다고 있는 것을 버릴순 없잖아。이것만쓰고 다시 사쓰지 않으면되지 뭐 아깝게버려 그렇지 엄마』했다。

나는 애의 말에 할말을 잃고 고개만 끄덕였다。

지난번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참 떠들썩한데에 1학년짜리까지도 반일감정을 가진것이다。

항상 동생하고 싸움하는 어린애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의젓할수가 있을까。정말 대견하고 가슴이 뿌듯해지옴을 느꼈다。【이인호·서울강서구목3동 7-9외34】

對蘇販禁解除 用意
美、西歐와 週內협의

【워싱턴UPI=聯合】미국은 西歐동맹국들의 일치된 대소강경을 나타낼수있는 좀더 강력한 방안을 채택할수있다면 對蘇가스관장비판매금지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美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25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관리는 이날 회견에서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이 금주 유엔총회참석을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西歐국가외상들과 이문제를 협의할것이라고 밝혔다。

제마엘 同僚가 難民학살 지휘

【런던AP=聯合】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을 총지휘한 인물은 폭사한 레바논 대통령당선자 바시르·제마엘의 동료였던 엘리아스·호베이카였다고 영국의 가디언紙가 25일 보도했다。

가디언紙는『믿을만한 소식통』을 인용、호베이카의『정예보안군』40여명이 이스라엘軍과 협력하여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을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전했다。

海外토픽

東京物價 가장비싸
★俸給최고는 제네바市民

東京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이며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제네바 시민들이고 아파트전세는 아부다비가 제일 비싼 한편 카이로나 자카르타의 물라 1병값은 봄페이에 비해 4~5배나 된다。

이같은 잡다한 사실들은 정기적으로 세계47개 주요도시의 물가와 이들 도시주민의 수입상황을 비교조사하고 있는 스위스최대은행인 유니언은행이 최근 발행한 자료집의 내용중 일부분이다。

이내용가운데 같은양의 상품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얼마가 필요한가를 보면 취리히의 경우를 기본인 1백으로 잡았을때 東京이 최고인 1백32, 그다음이 1백19의 아부다비와 1백18의 오슬로이며 헬싱키와 카라카스가함께 1백9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취리히=AP】

물에서 채소재배
★日무라이氏 市販도

일본수경식농업의 개척자인 무라이·구니히꼬씨가 나고야(名古屋)시 남서쪽 15km떨어진 유시야마에서 채소를 흙이아닌 물에서 재배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있어 수경식농업경영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20여년간 이곳에서 수경재배연구에 몰두해온 무라이씨는 지금「M수경연구회사」를 차려 1만5천㎡의 넓은 대지에 물통을 차려놓고 채소를 재배、시판하고 있다。【우시야마=AP】

生埋葬4일후 救出
★몸값노린 拉致犯 소행

한 미국청년이 최근 몸값을 노린 납치범들에게 납치된후 생매장됐으나 땅속에 갇힌지 4일만에 무사히 구출됐다고 경찰이 발표。

마이클·보컴이라는 20세된 이 청년은 지난14일 부친회사의 전직고용원1명을 비롯한 4명의 범인에게 납치돼 손을 뒤로 묶인채 나무상자에 갇혀 휴스턴근처의 한 유전에 매장됐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들의진술에 따라 4일만에 상자안에 억류돼있는 마이클을구출해냈는데 이 상자에서 환기통이 설치돼있음은물론 약간의 물과 빵조각까지 들어있었다。【산안토니오(美텍사스州)=AP】

칠순맞이 가족예배

이덕인여사(권사)

저희어머니(이덕인권사)의 7순 생신을 맞아 여러 어르신들과 친지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가족예배와 수연을 갖고저 하오니 많이 왕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때 : 1982년10월23일(토) 정오
곳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onto
주례 : 박희민 목사
◎예배후 같은 장소에서 피로연이 있읍니다.
◎개별초청은 생략합니다.

큰 아 들	강대길	며느리	임원선
작은아들	강찬덕	며느리	홍영희
세째아들	강찬영	며느리	허 령
큰 딸	강명옥	사 위	정운도
둘 째 딸	강연희	사 위	정효생
세 째 딸	강신옥	〈미국 사 위	이명순
네 째 딸	강성옥	거주〉사 위	이윤남

내고향 통닭집

◎예전의 분위기가 아닌 새로 단장한 통닭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날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메 뉴

오뎅·백반	$3.75	빈대떡 4개	$2.—
우동	$3.—	짜장면, 곰탕	$3.75
냉면	$4.—	갈비백반	$5.75
통만두	$3.—	생선찌개백반	$4.75
김밥	$2.95	통닭	$5.95
칼국수	$3.75	눌닭	$3.75
곰탕	$3.75	불고기백반	$5.95
비빔밥	$4.00	생선초밥	$4.50

지역에 따라 배달 가능합니다.

658½ BLOOR ST. W. ☎ : 537—0432 주인백

한인 추계골프대회

일 시 10월2일(토) 오전11시
장 소 Castlemore Golf Club
(에어포드 로드× HWY 7 북쪽)

※저녁식사는 거구장에서 합니다.
회비 : $35
시상 : 그로스 1, 2, 3
네 트1, 2, 3등
레이디상 1, 2, 3등
*그외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주최 : 골프협회
회장 김현모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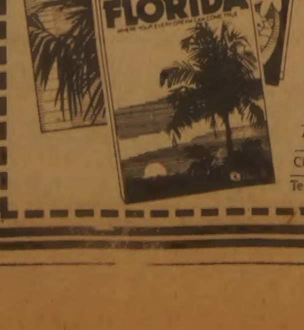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 661—1625
Toronto office
〈Mr. Terry Hill〉
혹은 Collect call
☎ : (1)—935—7175(B)
935—2325(R)

저를 아끼시는 웃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재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정번헌 배상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出退勤길 독서人口 느는데
車內가 너무 어둡다
버스·電鐵등 거의 基準照明못미쳐

讀書週間에 함께 생각해본다

버스나 기차, 전철안에서 「책읽기」를 하는 시민이 점차 늘고있다. 독서가 생활화 돼있지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수없다. 그러나 책을 읽고싶어도 「여건」이 마땅치않다는걸 아는사람은 드물다. 버스의경우 러시아워때는 만원이어서 책을 펴들 공간이없고 한가한때는 노면이 고르지않은탓으로 차체의 요동이심해 1분만 책을들여다봐도 눈에 심한 피로가 오며 야간에는 기차나 전철까지도 독서하기에 조명이 너무 어둡다. 차가 흔들리거나 조명이 나쁜곳에서 책을 읽다가 눈이 나빠진 사례는 우리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독서주간(9월24일부터 30일까지)을 보내면서 행정당국이나 운수회사, 시민들이 모두 함께 생각해볼 일이다.

◇차내 독서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시내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조명도가 너무낮아 책읽기가 힘들다。

독서에 알맞은 조명도는 보통 2백룩스에서 5백룩스사이. 또 신문을 읽을수있는 최저 조명도는 40룩스정도인데 많은 차량이 이에 크게못미치고있다.

차내가 어둡기로는 시내버스가 가장심하다. 독서는 커녕 밤중에 동전을 떨어뜨려도 찾을수도없을 정도다.

조명학박사 池哲根교수(서울大공대)가 최근 조사한 「대중교통기관의 조명실태조사」에 의하면 시내버스는 독서가능최저조도인 40룩스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8·6~8·7룩스로나타났다.

4개노선20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차령2년이상의 버스는 실내조도가 2~13룩스로 평균8·6룩스였고 차령2년미만의 새차인 경우도 1~25룩스로 평균8·7룩스에불과했다.

시내버스는 대부분 실내등 자체의 조도가 낮은데다 전구가 끊어졌거나 벌레나 때가 묻은것을 그대로 방치, 어둠을 가중시킨다. 어떤버스는 절전을위해 4개뿐인실내등중 2개를 아예 꺼버리기도 한다. 입석버스의 경우 중앙에 일렬로 설치된 실내등의 잘못된 위치때문에 큰 활자조차 읽기 어렵다. 승객이 서면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비교적 새차인 좌석버스의 경우는 조도가 20룩스를 웃돌아 입석버스보다 나은 편이지만 반수이상이 실내등2개를 소등, 승객의 반은 신문조차 읽기어렵다.

고속버스와기차도 비슷한 실정. 17개노선 85대의 버스를 대상으로 한 池교수의 조명실태조사에서 실내등의조명도가 7~34룩스로 평균 17룩스로 나타났고 좌석마다붙어있는 독서등은 3~16룩스로 평균 11룩스에 지나지않는다.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의 각급열차의 객실조명도 새마을이 17룩스, 특급이 15~16룩스, 보통열차는 13룩스에 그치고있다. 철도청이 마련한 객실조명시설기준은 50~2백룩스. 미국의 3백50~5백룩스에는 못미치지만 독서는가능한 조도인데 대부분 실의 조도가 시설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비해 지하철은 비교적 양호한편. 평균조도가 1백78룩스로 독서에 알맞은 조도인 2백룩스에 가깝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중 독서인구가 비교적 많은 것은 바로 이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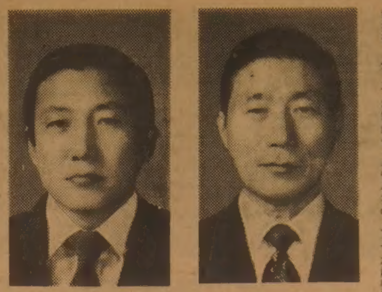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의하면 서울에서 하루에 각종차량을 이용하는 인구는 1천4백62만명으로 1인당 하루평균 승차시간이 1·5시간으로 나타났다. 차내에서의 독서가능한 1·5시간중 차체의 요동과 어두운 조명탓으로 거의 대부분을 그냥 보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南山도서관장 趙淸黙씨(57)는 "독서습관을 기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이 차속에서나마 책을 펴볼수 있는 조명시설등 좋은조건을 마련해줘야한다"며 지하철의 독서인구가 늘어가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가톨릭의대부속 明洞성모병원 안과과장 李相旭박사는 『어두침침한 차속에서의 독서는 시력을 약화시킬뿐만아니라 난시, 근시등 안질환까지 유발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조명도를 적어도 40룩스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方敗俊기자】

國民大 鄭範錫총장 전격解任사건
文敎部·敎聯서 眞相조사
후임總長인준보류…"官選理事파견고려"

國民대학재단이사회(이사장 趙海衡·48)가 鄭範錫총장(66)을 전격 해임시키고 후임총장에 동교 朴禧善교수(63)를 임명하자 문교부와 대한교련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趙海衡이사장 ◇鄭範錫총장

문교부는 28일 國民대학의 후임총장의취임은 현재 마찰을빚고있는 재단과 총장과의 분규가 해결되지않는한 승인해주지 않기로 방침을세우고 國民大 재단이사회가 총장을 해임하게된 과정의 적법여부등에관한 진상조사에나섰다.

사건의발단은 國民大 재단이사회가 지난24일 雙龍빌딩에서 이사회를열고 사전협의없이 鄭총장을해임 조치하는 한편 후임에 朴교수를선정, 이사실을 지난27일 교내학·처장회의에 일방적으로 통고함으로써 비롯됐다.

재단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에대해 鄭총장은『이유없이 임기중에 총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할수없다. 개인문제에앞서 교권침해로 간주, 승복할수없으므로 사표를 내지않겠다』고 맞서고있다.

이에대해 재단측은『지난24일 열린 이사회는 합법적이었고 이사10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만 밝힐뿐 더이상의 배경 설명을 하지않고있다.

한편 문교부관계자도 이날 『재단이사회의 소집과 의결등 현총장의 해임과 후임총장의 선정과정에 절차상 잘못이있으며 총장의해임을 너무 소홀히 다루는 교육풍토에 문제가있다』고 지적하고 원상이 회복되지않을경우 분규학교로 지정, 관선이사 파견도 불사할 강경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國民大분규사건은 지난80년 「7·30교육개혁」조치이후 학교운영에대한 재단측영향력이 약화되 대학총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반면 총장의 신분보장에는 어려움이있는등 불씨가 예상된 이후 처음일어난 사건으로 사태결과가 주목된다.

鄭총장해임조치가 말썽이 되자 지난27일 재단과·갈은 관련이있는 재단관계인사가 李奎浩문교장관을방문, 사정설명을했는데 李장관은 이자리에서 대학의 총장을 바꾸는일이 주식회사의 사장을바꾸는것과 똑같을수 없다는게 문교부의 기본입장임을 설명한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한 교련도 이문제를 중요한 교권침해 사례로 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鄭총장은 금년초 정원미달학과에 신입생을 추가모집하라는 재단측 요구를받아들이지않아 불화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鄭총장은 지난 79년 8월31일 당시 단과대학이었던 國民大에 학장으로 부임했다가 80년12월5일 종합대학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총장이 됐다。鄭총장의 임기는 83년 8월30일까지다.

趙이사장에 원만한 수습당부

문교부는 이날하오6시 국민대학교 재단이사장 趙씨를 불러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것을 당부했다.

債券 1억원어치 훔쳐
土開公 충북支社직원등 4명이

【淸州】충북도경 수사과는 28일 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 기술과직원 김주회씨(31)와 충북도청건설국 도시과 직원 오신한씨(34) 오씨의 동생 오신찬씨(26·무직·淸州市牛岩洞86의27) 정인식씨(45·서울江南區道谷洞) 등 4명을 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3월25일자정께 김씨가 근무하는 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 사무실에 침입, 1억원상당의 미발행 토지개발채권을 훔쳐내 이를유통채권으로 위조한후 이중3천만원권 1장을 중간상을통해 4천5백12만원에 팔아 나누어 가진 혐의이다. 【聯】

税金納期 추석뒤로
聞慶郡 기업들

【店村】경북聞慶郡내 각급 관공을 비롯, 50여개 기업체들은 오는30일이 납기인 종합소득세등 각종세금납기일을 추석후로 연기해 줄것을 건의했다.

8일 해당기업체에 따르면 국세인 82년도 제1기종합소득세중간예납과 재산세·자동차세·오물세등 각종세금 납기일이 추석전인 30일로 돼있어 종업원임금은 물론 추석상여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聯】

8억不渡내고 뺑소니
運輸회사支店長 구속

【釜山】부산 南部경찰서는 28일8억여원의 부도수표를 남발한 中區中央洞4街88 수도운수 부산지점장 金裕昊씨(41)를 부정수표 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제일은행 부산중부지점에 당좌를 개설, 거래해오며 지난8월16일부터 지금까지 거래처에 당좌수표 1백14장 도합 액면가 8억8백94만원을 남발한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聯】

서울大生 둘구속
집회·시위법위반

서울冠岳경찰서는 28일 서울대 朴政坤군(22·자연대 의예과2년) 金重鉉군(22·공대금속공학과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朴군은 지난24일 하오1시께 冠岳캠퍼스내 자연대건물앞에서, 金군은 지난16일낮 12시께 학생회관앞에서 각각 유인물을 뿌리며 반정부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있다.

2학기들어 집회및 시위혐의로 구속된 서울대생은 모두8명이다.

人口억제 적극支援
내무부, 가족계획사업 推進協구성

내무부는 28일 오는10월부터 내무부지방 전행정력을 이용, 인구억제대책을 강력히 측면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각市道지사와 각급 유관기관장으로 인구억제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 市·郡·區와 말단 邑·面·洞까지 가족계획사업추진 체계를 확립하기로했다.

내무부는 또 마을과 직장 공장단위로 새마을지도자와 임직원등을 계도위원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가족계획주관부서에 배치하는 한편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족계획을 필수과목으로 선정, 농민교육원등에서 영농교육하며 민방위, 예비군, 새마을교육에서도 가족계획교육을 포함시키기로했다.

이밖에 각市·郡·區별로 가족계획시범마을을 선정, 실적이 우수한 마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수원사업이나 각종개발혜택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불법課外 단속강화
慶北敎委

【大邱】慶北도교위는 진학철을 앞두고 불법과외근절을 위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28일 도교위에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에서의 과외예방활동과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입시철을맞아 일부 학부형들에 의해 은밀한 과외수업이 변태적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것。

도교위는 이에따라 학교장 책임아래 각학교의 자체예방대책을 점검, 보완토록 하고 과외예방에대한 교원들의 관심을 높이기위한 자체연수를 실시, 학생과 학부모를 계도시키도록 했다.

도교위는 이와함께 학무국장을 반장으로하는 5명의단속반과 산하 교육청별로 학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3~5명정도의 단속반을 각각 조직, 단속활동을 강화시키기로했다. 【聯】

列車·트럭衝突
京釜線… 일단정지무시 1명숨져

【淸州】28일새벽4시40분께 충북沃川郡沃川邑二靑里 성산업입구 경부선철도 건널목에서 大田을 떠나 大邱로 가던 大邱기관차사무소 소속 제1113호 화물열차(기관사 차준경·36)와 大邱대성운수소속 대구7아2207호 12톤트럭이 충돌, 트럭운전사가 숨지고 트럭이 대파됐다. 【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秋夕귀성객들 위해 버스運行회수 늘려
全南道

【光州】全南道는 추석귀성객수송대책기간인 오는 10월4일까지 21개 시외버스업체의 운행회수를 4백12회 늘리고 완행버스도 9백3회 늘려 모두 4천2백37회를운행토록했다.

道는 또 29일부터 오는10월5일까지는 백시의 부제운행을 해제, 도내 백시 3천8백10대를 모두 운행토록했다.

道는 이와함께 승객들의안전을 위해 운수업체는 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과속운행행위를 일체 금지토록하라고 시·군에 지시했다. 【聯】

제9회 한국음악콩쿠르
어제 入賞者 7명 시상

한국일보社주최 제9회 한국음악콩쿠르 수상자들에대한 시상식이 28일 하오5시 한국일보회의실에서열렸다.

(사진) 피아노부의 崔熙娟(1등·예원학교3년) 俞美貞(2등·서울예고1년)、李惠英(3등·서울예고1년) 바이올린부의 金信美(1등·예원학교3년) 鄭元順(2등·서울예고1년) 南湘希(3등·서울예고1년)군등 입상자 7명은 이날 본사 張在九사장으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이중 피아노부 1등수상자에게는 韓獨피아노제조주식회사(대표이사 白樂光)에서 수상기념으로 피아노1대를 기증했다.

元豊종업원들 都産추방大會

28일 상오11시께 서울銅雀區新大方1洞565 원풍산업주식회사(사장 鄭運楠·46)모방공장 운동장에서 생산부직원 李漢圭씨(31)등 남녀종업원 3백여명이 「우리노조합을 배격한다」는 4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30분동안 도산추방구사궐기대회를가졌다.

이들은 74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던 회사가 지난16일에는 가동률이 11%까지 떨어져 금년들어 8월말까지 19억원의 적자를 내었고 66%라는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로인해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않은것은 도산계 종업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27일하오2시께에도 노조사무실에 몰려가 지난15일부터 계속되온 파업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이르게된것은 도산계인 현노조집행부의 책임이라며 노조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했었다.

한마을 住民 27명 食中毒

【議政府】결혼잔치음식을먹은 한동네주민 27명이 집단식중독을 일으켜 7명이 보건소에 입원치료중이다.

議政府市新谷洞472 이옥순여인(53)등 이마을주민 1백여명은 지난25일 하오 1시께 시내 W식당에서 열린 같은동네에 허병하씨(54)의 2남 결혼잔치에참석, 돼지고기·떡등을 먹고 이중 27명이 하오 4시께부터 집단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28일 하오4시 현재 이옥순여인등 7명이 議政府市보건소에 입원가료중이다. 【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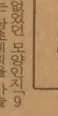
트럭굴러 1명死亡

【昌原】28일상오9시20분께 경남義昌郡大山面一洞里 수산교옆 국도커브길에서 부산7다4531호 1톤 포터트럭(운전사 김광주·32·부산北區嚴弓洞467)이 운전부주의로 언덕아래로굴러 적재함에 타고있던 박선희씨(58·여·義昌郡大山面北部里)가숨지고 운전사김씨등 17명이 중경상을입었다. 【聯】

「한강市長」
大役事 착수한 金聖培 서울市長
"民族번영 상징하는 市民의 江으로"

전임 朴英秀씨가 「나무市長」이었다면 지금의 金聖培서울시장(55·사진)은 「漢江시장」이될것이다. 재임중에 漢江개발사업이 시작됐다는 것뿐아니라 「푸른서울」과 함께 「맑은漢江」을 늘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지난 4월29일 취임한지 5개월만인 28일, 그는 「漢江시장」으로서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언제나 성큼성큼 걷는다. 말투나 걸음걸이에서 행정의 망설임을 찾아볼수 없다. 하지만 그의 표현대로 『漢江을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시민의 강으로 만들자』는 이번 사업은 大役事인만큼 너무 서둘지 않는모양인지 9월중착공이란 당초계획을 아슬아슬하게 달성했다.



사업계획을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던날 그는 세부까지 내용을모두파악, 자료를 거의 보지않고 유창하게 설명해나갔다. 『이좋은사업을 한꺼번에 발표하려니 아까와죽겠다』며 흘러내린 안경너머로 장난꾸러기처럼 웃던것은 그의 漢江에대한 애착이었다.

어쩌면 그는 욕구를 찾아 몰리는 말들을 스스로 다잡으려 애쓰는사람같기도하다. 너무 많이 알고있다는 데서 거침이없다. 그는 말을 하는점에서는 것을 과신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한다. 대학의 지방이전, 프레올림픽개최 제언등의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국회에서까지 질의가 나오자 『시장의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말해야 했던것도 이같은 「話癖」탓인지모른다. 취임초기에 한사코 마다했던 인터뷰로 출입기자들의 적지않은 오해를 산것도 따지고보면 「예방책」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최근 2、3일에 큰잔치를 앞두고는 다시 「종횡무진」이었다.

제1부시장으로 근무하다 서울시를 떠난지 3년반만에 되돌아온 그는 여느시장보다 업무에밝아 아랫사람들이 편하게 일하면서 어려워한다. 알기때문에 소홀해질까봐 5월말에는 전간부들에게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토록 했고 수시로 문젯점을 적어내라는 전문보고제도 만들었다.

그는 英國에서 한때 수학한탓인지 적극적인 긍정대답으로 『슈어(Sure)』라는 영어를 즐겨쓴다. 漢江개발의 성공여부도 물론『슈어』다. 시청에서 제일 키가 크니 「먼곳」이 가장 잘보인다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다」。 【任師淳기자】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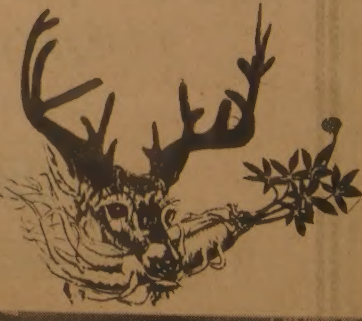
원녹용, 인삼, 생로얄제리 ⟶ 다량확보!

보약의 제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비타민
- 인 삼
- 웅 담
- 산 삼
- Nut 일체
- 녹 용
- 사 향
- 중 풍
- 심장병
- 간장병
- 비만증
- 신경통
- 고혈압
- 부인병
- 양기부족
- 위장병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대표 조 지 섭



40여大學서 스카웃戰爭…UCLA서 낚아

美式축구 본고장 美國대학 풋볼계에 「잔·李 旋風」 불고있다

"한국서온 麒麟兒"극찬…主戰키커 발탁
高校땐 史上최초 최우수賞 연속2번

【로스앤젤레스支社】 미식축구의 본고장 美國 대학풋볼계에 한국인 선풍이 일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美國대학팀에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는 앨라배마大의 피터·金(金凱桓), 하와이大 라슨李, 드레이크大 金태남등 3명. 그러나 이번 시즌부터 잔·李(한국명 李민종) 군이 UCLA의 주전키커로 활약하게되어 한국인 선수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 다우니高를 졸업한 잔·李는 4개월전 美國의 5백여 고교코치들이 뽑는 올·아메리칸·플레이어에 선정된 유망주. 李군은 장학금으로 UCLA에 입학한후 정규 1진선수로 발탁, 이번 시즌부터 게임에 출전케됐다.

李군은 고교시절 美國 최우수키커로 인정받아 전국40여개대학팀으로부터 스카웃교섭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南캘리포니아의 명문대학이며 대학 풋볼계의 쌍벽인 UCLA와 USC가 치열한경쟁끝에 UCLA가 李군을 확보했다. UCLA의 테리·도나휴감독은 『잔·리를 스카웃하게되어 무척 기쁘다. 우리의 전력은 더욱 강화됐다』고 스카웃소감을 밝혔다.

李군이 UCLA에 스카웃되자 LA타임즈등 유력신문들이 인터뷰기사를 싣고 「한국에서 온 풋볼 기린아」「올해부터 주전선수로 활약하는 풋볼의 천재」등으로 극찬했다.

李군은 다우니高 선수시절에 28개의필드골중 23개를성공시켰고, 터치다운후 추가득점킥 51개가운데 불과2개만 실수, 전국대학팀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178·5cm 77kg으로 단단한 체구를가진 李군은 만능스포츠맨으로 특히 테니스에뛰어나 고교때는 테니스부 입단교섭을 받기도 했다. 다우니 중학때는 야구팀 피처로 활약, 중학야구대회 결승전서 삼진17개를뺏어 최우수선수로 뽑혔으며 다우니 시장도『우리市의명예를빛낸선수』로 극찬할정도였다.

李군은 다우니高 2학년때 야구연습중 풋볼팀에서 날아온 볼을 우연히 차주었는데 이를본 코치가『정말 멋진킥』이라며 그를 미식축구팀에입단시켰다.

풋볼과 인연을 맺은 李군은 美國고교사상 불과 2년동안 최우수선수상(MVP)을 연속 2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6년전 부모와함께 이민, 중학에서 운동을 시작한 후 체력유지를위해 양식을 주로 하는등 체력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것. 슈퍼마킷을 경영하는 아버지 이규상씨 (52)와 어머니 이옥자씨 (48) 사이의 2남2녀중 막내인 李군은『댈라스·카우보이즈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UCLA는 한국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州에 자리잡고있어 동포들도 TV를 통해 李군의 활약을 볼수있게 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필드골 성공率 80%의 鬼才 미식축구의명문 UCLA대학에 동양인으로 처음 스카웃되어 정규1陣선수로 뛰게된 李민종군。 댈러스·카우보이스팀에 入團하는것이 꿈이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풍만한 몸매 모델업무차 마닐라를 방문중인 장·레오폴드양(20)이 5피트7인치에 34-24-34의 늘씬한 몸매를 선보이고 있다. 【마닐라26日AP聯合】

李起東 다시 放送에 出演금지조처 풀려

코미디언 땅콩이 李起東<사진>이 방송출연금지조처가 풀려 2년만에 TV에 모습을 선보인다. 작은 키와 굵은 허리, 특유의 몸짓으로 시청자들을 웃겼던 李起東은 오는 10월5일 밤엔 MBC-TV의 「여의도 1번지」로 컴백한다.

가수張銀淑 MBC그림자 출연 성우로

가수 張銀淑이 MBC라디오의 반공드라마「그림자」시리즈 「춤추는 가면」(李基明극본·金興培연출)에 성우로 출연한다. 연예인포섭을 목적으로 남파된간첩 라인의 [illegible] 張銀淑은 가수 홍은애역을 맡는다. 10월5일부터 방송될「춤추는 가면」은 무대극의 대사일부를 도입하고 효과음악을 생음악으로 삽입하는등새로운 시도를 보이고있다.

◇尹恒起

尹恒起 공백깨고 「너를좋아해」出盤

가수 尹恒起가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자작신곡「너를 좋아해」를 출반,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나는 행복합니다」이후 2년만에 출반한 새앨범에는 「간다는 말도 없이」「남산」「누구없소」「미련의 그림자」등 9곡이 실려있는데 모두 尹恒起의 작사·작곡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28>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㉛

살아간다기 보다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생활이 계속됐다.

사나흘에 한번 때로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씩 집에 들어오는 일환이를 오목이는 기다리지 않게 됐다. 기다리기는 커녕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했다.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노략질이나 파괴아니면 매질이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오목이는 그가 빼앗는대로 빼앗겼고, 깨부수는대로 내맡겼고 때리는대로 얻어맞았다.

일환이가 다녀나간 자리는 화적떼가 휩쓸고 지나간 거리처럼 무참했다. 그러나 다녀갔으므로 며칠은 안들어오리라는 희망 하나로 남았다. 오목이는 그가 안들어오는 며칠동안 밤잠을 안자고 돈을 벌고, 부러진 상다리를 고치고, 깨진 그릇대신 다시 예쁜 그릇을 사고 자신의 상처를 아물렸다.

저만치 밀려오는 사나운 파도를 보면서도 바닷가에 열심히 모래성을 쌓는 철없고 어리석은 소녀처럼 오목이는 소강상태의 며칠을 열심히 살았다.

저 여편네 어디가 좋아 모자라나봐, 아냐 살짝 돌았을 거야.

동네 여편네들은 이렇게 수군수군 흉을 보았다. 또 그녀가 시퍼렇게 멍들거나 여기 저기 터진채 멀쩡한 사람과 다름없이 움직이고 화평한 얼굴인걸 보고 세상에, 맷집도 좋지, 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했다.

이래 저래 그녀는 동네 구경거리였다. 구경거리 치곤 매우 이로운 구경거리였다. 왜냐하면 일환이의 무지막지한 행패에 견주어가며, 동네 여편네들은 별볼일 없는 그들의 남편을 갑자기 재평가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영감이 제일이야.

일환이가 우지끈뚝딱 행패부리는 소리를 들으며 옆방 여편네는 제울음과 눈곱이 주렁주렁 매달린 남편의 얼굴에 추파를 보내기까지 했다.

불쌍한 건 오목이였고, 오목이보다 더 불쌍한 건 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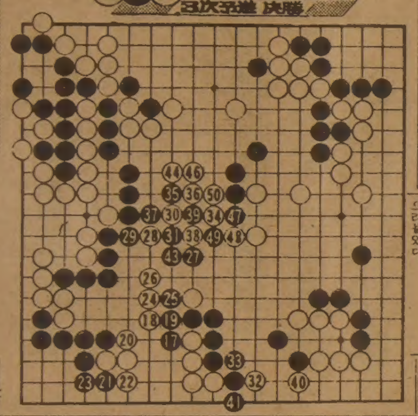
아기는 엄마의 얼굴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보기도 전에 아빠 얼굴의 공포를 먼저 알아본 것같았다. 아빠가 들어오면 아기는 함부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했다. 아기는 엄마 아빠 낯도 익히기전부터 눈치 보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오목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건 일환이의 행패보다는 울음이었다. 행패부릴 기력조차 안남기고 술에 곤죽이 되어 들어올 적에 그는 대문간부터 꺼이꺼이 울었다. 아내를 보면는 눈물을 흘리고 아기를 보면는 엉엉 통곡을 했다. 그러다 잠이 들고 잠결에도 간간이 울음으로 흐느끼는 그의 참혹한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오목이는 마음이 쓰렸다. 까진 살갗에 소금을 부벼대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천연덕스럽게 갑자기 참혹하게 변해졌고, 식구들을 아내지 못하게된 일환이는 아내까지도, 그가 혼신의 힘으로 사랑하고 미워한 식구들까지도 그의 참혹한 동반자로 삼으려 들었다.

주간女性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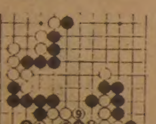
第3局第7譜 1~50 (각4시간·덤5집반)

白(7段) 鄭鉉
黑(4段) 李相濬

白17로 젖힌수가 신랄했다. 鄭7단은 『진짜 살아둘것을 그랬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 표정은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 또 실제로도 이것은 최소한 패로버티는 수단이 남아있었다. 즉 黑17에 대하여 참고도처럼 우선 白1, 3으로 젖혀 뻗는다. 黑4는 때점. 여기서 白5이하 11이면 黑12로서 패가 나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실전은 白18로 늘여다본 수가 결과적으로 패착. 한번 강력하게 싸워볼 계산이 어긋나고 뒤늦게 白20으로 막았으나 黑21, 23을 당하며 근거가 없어지고말았다. 白24이하는 문자그대로 필사의 탈출이다. 李4단은 공격의 리듬을 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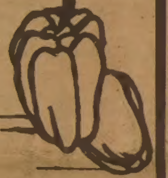
白、최후의 승부수



黑27이하 31, 이제 하변 白대마는 진짜로 黑의 포위속에 갇히게 되었다. 白도 절망적이다. 白은 이에 이르러 34이하로 우상쪽 黑을 커다랗게 삼키려 한다. 하변 白과 무조건 교환된다면 승부가 된다고 본것일까. 어쨌건 중앙경계선의 패를 白50으로 후퇴한데서 최후의 공방전은 일어나고야 만다. 42…30, 45…39 【一凡】

도 매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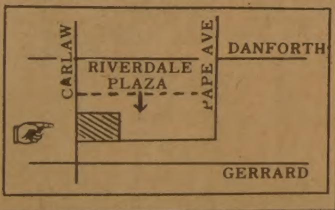
○ 채소 ○ 과일 ○ 화초



○ 최저가격
○ 최대봉사
○ 최고품질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 바자회

일시 : 1982년10월16일(토) 상오11시~하오4시
장소 :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Tor.)

품 목 : 떡종류, 된장, 고추장, 빈대떡, 밑반찬 젓갈 등등…
식 사 류 : 곰탕, 진주비빔밥(각$3)
복 권 : 1장 $3.00
복권상품 : 1등—편물로 짠 이불1개 • 2등—흑백TV
3등—장미쌀 50LB • 4등~10등—장미쌀 25LB.
문의처 : 494—1856(양혜신)

● 노래자랑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시어 출전해 주십시요.
● 각 교회의 교우여러분은 나오셔서 저희 대한부인회를 도와 주시고
● 파실 물건이 있으시면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
회장 양혜신 외 임원일동 삼가

— 청소년 문화잔치 —
우리말 잘하기

교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모국어와 한국어를 길러주기 위해 작년에 의해 제2회 우리말 잘하기 및 웅변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0월10일(일) 오후5시
장 소 : 교육회관 (252 Bloor St. W.)
제 목 :

우리말 잘하기	웅변대회
자유(5분간)	한글을 배워야 할 이유(7분)

등록마감 : 10월7일(목)
연 락 처 : ☎:789—7352

후원 : 각한글학교 • 총영사관 • 실업인협회
한인장학재단 • 한인회 • 외한은행 • 한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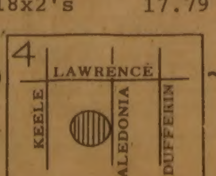
공동주최 : 한 • 카청소년 문화협회
토론토라이온스클럽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October 4 - October 16		SPECIAL
Peak Frean's Regular Cookies 200 gr	6x1.29	$ 5.10
Peak Frean's Creme Cookies 200 gr	6x1.39	5.15
Peak Frean's Chocolate Digestive 200gr	6x1.89	6.89
Planter's Peanuts in shell 14 oz.	12x2.79	20.88
Coffee (orange) Crispettes	12x1.59	11.88
Laura Secord Regular Chocolate Bars	36x40¢	9.49
Rowntree After Eight 200 gr		1.49
Rowntree After Eight 390 gr		2.69
Rowntree Black Magic ½ lb.		2.23
Rowntree Black Magic 1 lb.		4.35
Planter's Snack Pack Peanuts	24x40	5.99
Planter's Dry Roasted Peanuts 200 gr		1.27
Planter's Dry Roasted Peanuts 325 gr		1.75
Planter's Vacuum Pack Cocktail Peanuts	360 gr	1.89
White Swan Towel	18x2's	17.7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공무원俸給 6% 引上

本俸기준 下位職·경관·敎員우대

巡警은 최고 32.3%

活動費신설

공무원봉급은 본봉기준으로 일률적으로 6%를 올리되 장기근속수당과 對民활동비등을 신설해서 하위직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관, 교원등을 우대키로한 정부방침에 따라 이들의 월평균보수액(본봉·수당·상여금을 합계한것)이 내년부터 최고32.3%까지 대폭 오르게됐다. 27일 관계당국에서 밝혀진 예산자료에의하면 ▲경찰관의 경우 순경(6號)의 월평균보수가 내년부터 32.3%오르는것을 비롯, 경위(12號)가 24.3%, 경정(16號)이 16.7%씩 올라 처우가 크게 개선되며 ▲일반직공무원의경우는 7급12호 기준15.5%가 오르고 ▲교원은12호(10년근속) 기준10.9%가 인상된다.

그러나 상위직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인상률이 본봉인상률 6%에도 미달하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돼 일반직 6급(12號)이 5.4%, 경찰직 총경(20號)이 5.0%밖에 오르지 않게된다. 경찰관들의 보수인상률이 특히 높은것은 내년부터 對民활동비가 신설돼 지·파출소장에게 월5만원씩, 지·파출소근무 경찰관들에게 월2만원씩 따로 지급되게 되기 때문이다.

직급별 월보수인상내역을 보면①일반직 6급(12호)의 경우 본봉6%인상으로 2만원이 오르고②7급(12호)은 본봉인상으로 1만9천원, 장기근속수당지급(신규)으로 3만원등 도합 4만9천원을 더 받게되며③총경(20호)은 본봉인상으로 3만3천원④경정(16호)은 본봉인상 2만9천원과 수당신설 6만원등 도합8만9천원⑤경위(12호)는 본봉인상 2만1천원과 수당인상 2만원, 대민활동비 신설5만원등 도합9만1천원⑥순경(6호)은 본봉1만4천원과 수당신설 4만원, 대민활동비 2만원등 도합7만4천원씩을 각각 더 지급받게 되고⑦교원(12호)은 본봉인상 2만원, 호봉격차조정 9천원, 교직수당인상 1만5천원등 도합4만4천원이 인상된다.

"商談못지않게 對韓認識중요"

全대통령 貿易박람회 전시관參觀 격려

全斗煥대통령은 27일상오 서울江南區三成洞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82서울국제무역박람회展示館을 약2시간동안 돌아보고 계자관들을 격려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날 박람회장단실에서 尹子重대한무역진흥공사사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박람회를 보러오는 외국의 기업인들과 바이어들에게 특히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라』고 지시하고『이번 서울 박람회가 외국인들로부터 질서있고 짜임새있는 행사로 평가받으면 그것이 바로 수출증대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商談도 중요하지만 외국손님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9명接見 훈장수여

우수새마을지도자

全斗煥대통령은 27일하오 청와대에서 올해 3·4分期 우수새마을지도자 29명을 접견, 새마을훈장을 수여한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다과를 함께 들며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마을지도자들에게 새마을宿願사업비로 마을에 5백만원씩, 직장·공장·직능별로 3백만원씩의 副業과 기념품으로 손목시계를 주었다.

수단국회 副議長도

全斗煥대통령은 27일하오 청와대에서 수단의 알멜·하미드·살리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蔡汶植국회부의장 禹炳奎사무총장이 배석했다.

교과서 是正案 37개項 日전달

정부는 27일 日本의 역사교과서 歪曲문제와 관련, 우리측의 是正要求案을 일본측에 공식전달했다.

외무부의 崔東鎭亞洲국장은 이날상오 고또오·도시오(後藤利雄)駐韓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시정조치와 관련한 우리나라관계전문기관의 검토자료를 전달했다.

崔국장은 고또공사에게 日帝통치기간중▲史實을 명백히 왜곡한 부분과▲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부분▲主權에 관련된 부분등 13개항은 일본정부책임하에 하루빨리 시정조치해줄것을 요구했고 餘他부분에 관해서는 공동연구기구등을 설치, 시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우리측입장을전했다.

崔국장이 전달한 자료는 즉각시정 사항으로▲일본의 한국침략▲주권박탈▲義兵▲安重根의사▲3·1운동▲皇國臣民化강요등 13개항을, 早期시정사항으로▲壬辰倭亂▲雲揚號사건▲壬午軍亂▲江華島조약▲甲申政變▲防穀令▲東學농민운동▲甲午개혁▲明星황후시해▲韓日議定書▲海牙특사▲光州 학생운동등 19개항을, 其他시정사항으로▲漢郡縣설치▲고구려건국▲渤海영토▲한국문화의 東流▲統一신라와일본관계등7개항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無秩序·부패·投機 추방을"

全대통령, 司正會議지시

3大否定심리강력除去

全斗煥대통령은 27일『무질서, 부패, 物價오름세등 3대否定心理를 의식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추방할수있도록 구체적실천대책을 마련해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이의실천에 솔선수범토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금년도 제3차 司正협의회 전체회의개최에 즈음한 지시를통해『아직도 국민생활과 의식속에는 否定심리의잔재가 완전히 불식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질서의 생활화▲신뢰받는 공직자像의 定立▲건전한생활자세의 확립을 강력히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질서는국가사회의 존립기반이므로 최우선과제로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거리질서와 교통질서를비롯한 생활주변의 작은 질서부터 철저히 지켜나가는 풍토를 조성해 질서의생활화를이룩해야한다』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모든 공직자는 의식개혁에 앞장서서 부당한 청탁이나 물질적유혹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공손한말과 친절한 자세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신뢰받는 공직자像』을 정립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投機와 買占賣惜등 물가상승을 자극하는행위는 일체 용납될수없다는점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물가안정에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자세를 확립토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어제3개常委

국회는 27일하오 內務·農水産·商工등 3개常委를 열고 繫留법안및 請願을 각각 심의했다. 국회는 이날 또 運營위 國會법개정심사小委와 法司·建設委小委를 열고 관계법안을 심의했다.

수하르토 10월16일 訪韓

韓·印尼 기술協力·資源개발 협의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의 초청으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수하르토대통령은 訪韓중 全대통령과 頂上회담을 갖고 한반도정세를 포함한 아시아및 국제정세 전반과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관계증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頂上은 수하르토대통령의 訪韓을 계기로 양국간의 기술협력, 합작투자, 資源개발등 실질적인 經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全대통령이 제안한 太平洋頂上회담의 실현문제와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유대강화문제등에 관해서도 협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수하르토대통령의 이번 訪韓에는 목타르外相, 수드하르모노官房相, 니티사트로 경제재정산업담당調整相등 공식수행원 18명과 비공식수행원 33명이 수행한다.

수하르토대통령은 訪韓에 앞서 스페인과 미국을 공식방문하며 歸路에는 일본을 비공식으로 방문한다.

★解說2면에

◇수하르토印尼대통령

對韓戰力증강 支援

韓美外相 太平洋회담 논의

【뉴욕=金泰雄특파원】李範錫외무장관은 26일 하오4시30분(한국시간 27일상오5시30분) 뉴욕의 유엔 플라자호텔에서 슐츠 美국무장관과 韓美외상회담을 갖고 全斗煥대통령이 제안한 太平洋국가頂上회담 韓半島통일및 미국의 對韓군사지원문제등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약45분간 진행된 이날회담에서 李장관은 太平洋연안국가간의 협력강화및 상호이해증진을위한 太平洋頂上회담의 필요성을설명했으며▲슐츠장관은 이를환영한다는 기본입장을 표시한후『이구상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沿岸국가들의 다양성을감안 관련국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꾸준한 준비작업이 필요할것으로 본다』고말했다.

이날회담에서 슐츠장관은 미국정부의 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한국군의 戰力증강을위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해 다짐했다.

한가위

◇성묘는 조상의 은혜를 돌이키는 경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성묘후 가족과 함께 묘소부근의 명소를 찾는것도 생활의 지혜다.

추석 省墓

省墓는 조상의 은혜를 돌이키고 분묘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省墓는 경건하고 정성이 있어야 한다.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경제생활의 변천은 우리의 미풍양속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省墓도 예외는 아니다.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고향을 찾아보기란 쉽지않고 산소를 찾는일 더욱어렵다.

예전처럼 장사지낸후 3년동안 분묘옆에 여막을 짓고 시묘를 할수도 없고 3년이 지난뒤부터 매달 초하루와보름에 省墓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없다.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봄·가을 한차례씩 省墓를 해야한다는 조상숭배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점이다. 이때문에 추석이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수라장이 된다.

봄省墓는 만물이 소생하는데 우리 부모는 왜 돌아올수없을까 하는 출척(怵惕)의 마음으로, 가을省墓는 낙엽이 떨어져 나무뿌리를 덮는 것을 보며 다시한번 부모를 생각하는 처창(悽愴)한 마음에서 한는것으로 내려온다.

이런점에서 省墓는 그무엇보다도 조상을 생각하는 정성과 경건한 마음가짐이있어야한다.

최근엔 省墓를 이런 마음이 결여된 의무로서, 괴로우면서도 어쩔수없이 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있다.

때로는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거나 휴지 오물등을 마구버려 주위 경관을 해치기도한다.

마음의 자세가 되지 못하고 단지 의무로서 생각하는 성묘는 허례허식에 빠지기쉽고 하나의 소비형태로 변하게된다. 올추석은 3일간계속되는 연휴의 첫날이다.

조상도 찾아보고 도시생활에 찌든 마음을 씻고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풍양속을 가르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다.

최근 들어서는 성묘를 墓祭만을 위해 가지 않는다. 성묘가 끝난후 주위의 명소를 찾아보는 가족들이 많아졌다. 이것도 현대를 사는 생활의 지혜다.

묘소옆에서 텐트를치고 버너로 음식을 해먹으며 오손도손 보내는 가족들까지 눈에 띈다.

龍仁공원개발전무 愼而範씨(51)는『성묘를 와서 가족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도시를 벗어나 하루를 지내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성묘뒤는 龍仁자연농원에 들러 가족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남한강공원묘원 영업부장 鄭成煥씨(40)는 이번처럼 연휴의경우 성묘를한뒤 고향이나 묘소인근에있는 관광명소를 찾아보는것도 도시생활의 피로를푸는 방법이된다며『지난해의경우 남한강 공원묘원에 산소를둔 성묘객중에는 묘원에서 2㎞정도 떨어진 驪州신륵사·영릉등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연휴때 중3, 국교6년인 자녀들을 데리고 경남咸陽郡에있는 산소에 다녀왔다는 회사원 金鍾哲씨(46·서울九老區開峰洞 원풍아파트)는『서울의 답답한공기와 아파트생활을떠나 자연속에서 하루를보낸 자식들이 비로소 고향이 무엇인가를안것같아 무척 기뻤다』며『올추석엔 부근에있는 관광명소를 꼭 둘러오겠다』고 말했다.

成均館 총무처장 朴重勳씨(68)는『성묘는 단순히 산소를 찾아가 절을하고 오는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은공을 생각하는 경건한 마음이 앞서야 된다』며 가족들이 함께 성묘를 한다는것은 어린 자식들에게 산교육이 된다고 말했다. 【鄭在龍기자】

社會漫評

가도 모르고… 와도 모르고…

地平線

약3만명의 인구가 사는 3백60만평 남짓의 작은 도시. 그 둘레를 6백만평 남짓의 푸른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도시가 80년전 에베네저·하워드의 꿈이었다. 그가〈미래의 전원도시〉에서 그린 유토피어가 현대인의 전원도시에 대한 꿈의 출발점이었다고 미국의 로버트·피시먼교수는 말하고있다. 사람들은 이 유토피어에서 오순도순 협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꿈이다.▼코르뷰제라면 유엔본부를 설계한 현대건축의 할아버지라고 할수있다. 그는 그옛날로 돌아가려는「전원도시」보다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로 만든 빌딩을 아름답게 배치한 초현대적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푸른 숲에 둘러싸인 거대한 유리빌딩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적어도 악기 하나쯤은 다룰줄 알게 되는 것이 코르뷰제의 꿈 이었다.▼유엔인구연감에 의하면 서울은 인구로 쳐서 세계에서 네번째의 거대도시다. 물론 하워드가 그린「전원도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코르뷰제아가 그린 초현대적인 도시도 아니다. 전국인구의 22·3%와 승용차의 54·2%, 종업원 5명이상의 기업체 45·6%가 북적대고 있는 거대한 장바닥과도 같다. 게다가 이대로 간다면 91년엔 인구가 1천1백90만명이나될것이라고한다(국토개발연구원).▼사실 세계의도시들은 전원도시나 초현대적도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은 서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건축설계를 가르치고있는 金泰修씨에 의하면「인간의 도시」가 미래의 도시의 꿈이라고 한다. 인생의즐거움과 예술이 있는 도시다.▼우리도 뒤늦게나마 수도권정비법을 마련해서 서울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법안은 대체로 서울이 더이상 팽창하지 않도록 막는 것에 목표를 두고있다. 거대한 공해도시 서울을 인간화하는 작업은 별도로 의논하는 수밖에 없다. 강남이라는 거대한 새시가를 만들면서 자그마한 島山공원 하나로 걸치[illegible]한는것 같은 실수를 [illegible]토하는 작업이다.▼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뒤의 녹지에 지상6층의 빌딩을 짓기로했다한다(한국일보 1일자 10면 보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든 도로를 끼고 도는 생강을 메여울 계획도 있다고 들린다. 모두가 서울의「인간화」에 역행하고, 자기가 만든 도시계획을 스스로 짓밟는것과 같다. 이식으로 한다면 도시계획이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32년전이날(28일) 수복당시와 오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반성을 촉구한다.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533-2361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순복음카나다교회창립4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 김남수 목사
■ 순복음뉴욕교회 담임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4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모습과 책임을 새롭게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아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념잔치를 마련하였읍니다. 강사 로는 2000여 성도님을 모시고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셨아오니, 부디들 오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비옵니다.

조이식 목사와 성도일동이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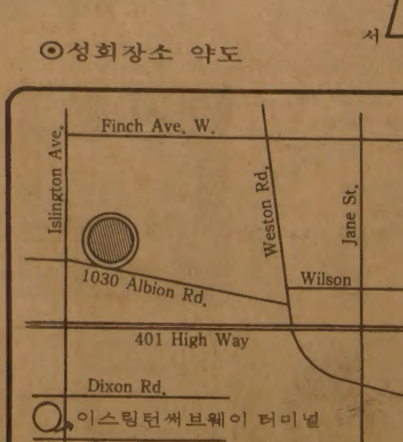
주제 :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일 시 : 1982년10월17일(일) 저녁7시
18일(월) : 새벽6시 저녁7시30분
19일(화) : 새벽6시 저녁7시30분
20일(수) : 새벽6시

장 소 : 순복음카나다교회

1030 Albion Rd., Rexdale
☎ : 교회 743-4813 목사관 745-3884

⊙성회장소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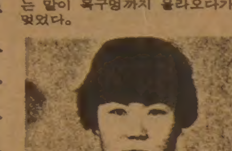


*Islington과 Albion이 만나는 곳에서 우편으로 50m지점에 교회가 위치 하였음.
*한국식품서부대리점 바로옆.

일하며 생각하며

만화의 主人公을 偉人으로 보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金恩淑
<동화작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알록달록한 만화영화표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엄마, 초대권 얻어왔어요。우리반 아이들은 벌써 반도 넘게 보고 왔대요。그리고 엄마 이번 로보트는 지난번 로보트보다 훨씬 힘도 세고 정의의 용사래요』

아이는 숨도 제대로 안쉬고 속사포 처럼 말을 하고나선 엄마의 낯빛을 살폈다。

『지난번에 영화 본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또 보여달래니?』

『한달이나 됐는데 또라니요?』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초대권이라는 표의 귀퉁이를 손끝으로 간닥거렸다。

내눈도 어쩔수 없이 아이와 간닥거리는 종이쪽지에 번갈아 멎었다。

물론 아이의 눈빛엔 몹시 가고싶다는 뜻이 그려져 있었다。

동화를 쓴답시고 도리어 아이들과 접촉해야할 시간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나가다 불현듯 가책(?) 비슷한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의 청을 소나기로 한꺼번에 다 들어줄 때가있다。

영화를 함께 보러가는 일도 대개는 그런때에 들어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러갈 때나 아이들과 함께 책방에 들를때와는 달리 영화를 보고 온날은 언제나 뒷맛이 씁쓸했다。물건을 잔뜩 사들고 온 손도 어쩐지 허전한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우선 영화를 보는 시간보다 두곱이나 넘는 시간을 앞서 가서, 이어진 줄끝에 닭꼬리처럼 붙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표파는 창구가 보일때까지 종종대며 기다려야하는 일은 아이와 함께 만화영화를 보러간 엄마라면 누구든지 경험해 보았으리라。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감싸쥐고 들어가본 영화관은 아이들만 모아 놓은 미니지옥 같았다。

탁한 공기속에서 아이들은 놓친 엄마의 손을 찾느라,벗어진 친구의 신발을 줍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

그래도 용케들 제아이 곁에 제엄마가 앉아 땀을 식힌지 잠깐, 커다란 확성기에서 주제음악이 터져 나왔다。

귀가 아프다 느끼는 것도순간, 곧 멍멍해지고 마는데 아이들은기막히게 힘찬 목소리로 확성기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원색의 영화를보았다。

내 아이도 예외없이 커다란 눈망울을 화면쪽에다 굴리며 신나게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재미있니?』

아이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그럼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왔지 않아요?』아이는 무엇이 재미있다는 얘기는 안하고 아이들이 많이 온걸 자랑하듯 말했다。

영화가 이어지는동안 나는 소르르 졸음에 빠져들고 끝나는'종'이올릴때에야 화들짝 놀라 아이손을 더듬더듬 찾았다。

『꼭 잡아, 놓칠라。어서 나가자』

아이는 다시 보았으면…하고 입맛을 쩝쩝이는데 엄마는 무슨 암흑의 동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양 허둥허둥 인파를 뚫고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기운이 다해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데 아이가 또 텔리비전의 스위치를 켰다。

『방금 영화 보고와서 또 켜니?』

『하록선장 할 시간예요!』

『참,너도 너무 하는구나!』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꾹 멎었다。

『얘가 너무 하는게 아니지。저 영화들을 애들이 만드는게아닌걸』

나는 순간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곳으로 아이가 빨리어드는 착각을 느꼈다。불안했다。

잡아야지。아이가 내 둘레에서 나와 함께 책을 보고 일요일이면 산에 가서 밤나무가지를 쳐주는 아빠를 돕는 아이로 붙잡아두어야지 하고 생각하며 아이가 보는 화면을가만히 두 손으로 덮었다。

『차라리 밖에 나가 공차기를 하렴』

아이는 다행히 곧 밝은 얼굴이되어 뛰어나갔다。나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저녁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생각했다。

『얘야, 슈퍼맨이나 로보트가 위대해보이니? 그렇지 않아。

진짜 위대한 사람은 너와 비슷한 능력과 환경속에서 살아가는사람들 가운데 태어난단다。그러니까 우리 힘이 미치는 곳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로운 사람이 곧 위대한 거야。

사람의 위대함은 단순한호기심이나 흥미거리의 주인공은아니란다。

네가 초인적 능력을 가진 만화의 주인공을 보고 위대하다고생각하지 않도록 엄마는 늘 일깨워주련다』

닉슨이 펴낸 「指導者들」

周恩來 인상적·드골은 겉만 요란
「브」는 美蘇회담에 八等身안마사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백악관에서 쫓겨났던 리처드·닉슨 前미국대통령이 30여년간 정치생활중에 그가 만난 前·現職세계정치가들에 대한 기담과 일화들을 모아 「지도자들」이란 책을 펴냈다。

닉슨은 오는10월 시판을 앞둔 총3백48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신간저서에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적인 政客들에 얽힌 뒷얘기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다。

닉슨은 자신이 만난 가장 인상적인 공산국가지도자로 故周恩來 중공수상을 꼽았으며 브레즈네프는 73년 캠프 데이비드 美·蘇정상회담때 八等身의 매혹적인 여자안마사를 대동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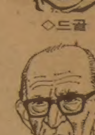
닉슨은 또 이책에서 드골은 겉만 요란하고 속은 텅빈 인물이며 故毛澤東의처 江靑은 자신이만난 가장 품위없는여자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닉슨이 밝힌 세계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본다。

◇주은래

◇브레즈네프

◇드골



◇베긴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 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때때로 다정다감하고 우호적인 체취를 풍기는 인물。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강철못과 같이 근엄해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와진다。

옷을 입을줄아는 멋장이이며 고급자동차수집광、73년 캠프 데이비드 美·蘇정상회담에서는 매력적인 여자안마사를 대동해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드골(前프랑스대통령)=겉은 요란하지만 속은 텅빈 인물、장중한 성당의 으리으리한 외부장식에나 비유할만한 인물이다。하지만 다행히도 할리우드의 건물모형에 비유할 인물은 아니다。

▲흐루시초프(前소련공산당제1서기)=촌티가나는 천박한 인물。악마의 化身같은 사나이。

▲毛澤東(前중공당주석)=방에는 책이 꽉차있지만 옷차림은 너절했다。우익분자를 좋아한다고 솔직이 털어놓을 만큼 융통성있는 인물。

▲周恩來(前중공수상)=가장 인상적인 공산주의국가지도자。중공의 메테르니히요 탤레스요몰로토프이다。부하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 하거나 인품을 드러낼필요가 없다고 철저하게 믿고있는 사람。그만큼 자기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있는 인물이다。

▲江靑(毛澤東의 처)=내가만난 여성중 가장 냉혹하고 품위없는 여성。

▲베긴(이스라엘수상)=여우같은 狂信者、무책임한 친구、강인한 성격의 소유자。

다른 이스라엘지도자 들이 상상할수없는일을 해내고 있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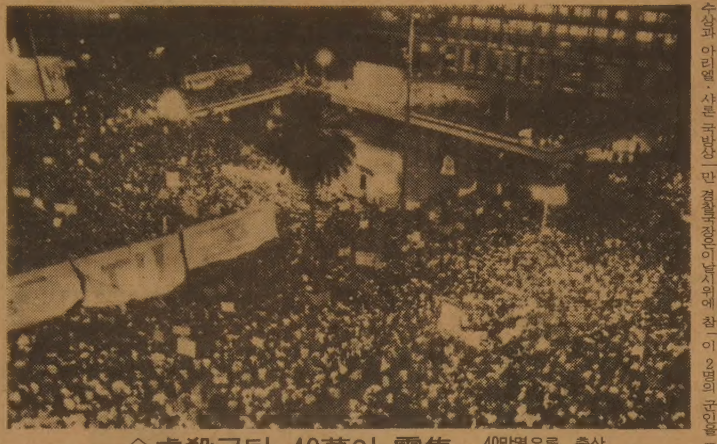
▲팔레비(前이란王)=크게 모질지못한 성격때문에 치명적실수를 범한인물。미국이 팔레비를 제거한것은 커다란 실수였다。

【뉴욕=金泰雄특파원】

「이」史上최대 反政시위

虐殺항의 40萬명참가

베긴·샤론 辭任요구



◇虐殺규탄 40萬이 雲集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人들이 25일밤 텔아비브에 운집,팔레스타인난민학살사건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를 벌이고있다。【텔아비브25日AP聯合=聯合】

【텔아비브UPI=聯合】약40만명의 군중들이 25일밤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난민 대량학살사건에 항의、메나헴·베긴수상과 아리엘·샤론 국방상의 사임을 요구하며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사상 최대규모의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텔아비브의 아브라함·후지만 경찰국장은 이날시위에 참가한 군중을 40만가량으로추정했다고 이스라엘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시위에서 경찰이 2명의 군인을 포함、20명을 체포했으며 수건의 위협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텔아비브시청앞 『제왕의광장』에 운집한 시위군중들은 반정부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베긴과 샤론은 학살사건의 책임을지고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날시위는 야당인 노동당이 주관했는데 노동당이 반정부시위를 촉구한것은 이스라엘史上 처음이다。

시몬·페레스勞動黨당수는 연설에서▲베긴內閣의사퇴와 ▲베이루트주둔 이스라엘軍의 즉각철수▲학살사건의 진상규명 ▲요르단江西岸의 장래에관한 회담再開등을 요구했다。

聯政탈퇴自民 대패
슈미트 留任가능성

西獨 지방선거

【프랑크푸르트(서독)聯合】슈미트 서독수상이 이끄는 社民黨과의 聯政에서 탈퇴, 右翼基民黨과의 제휴를선언한 自民黨이 26일 실시된 헤세州지방선거에서 1개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참패를 당함으로써 슈미트 현수상이 유임될 가능성이 대두된 반면 서독에 중도우익정부가 들어서리라던 앞서의 기대는 도전을받게됐다。

“이날 잠정적으로 발표된 공식개표결과에 따르면 한스·디트리히·겐셔 前외상이 이끄는 自民黨은 과거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1%의 저조한 득표율을기록、의석확보저지선인 5%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단1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533—2361

스즈끼·趙紫陽회담
中蘇관계등 토의

【北京AP=聯合】중공을 방문중인 스즈끼(鈴木) 일본수상은 27일 중공수상 趙紫陽과 2차회담을 갖고▲中·蘇관계▲金日成의 중공방문 ▲국제문제▲日·中共차관협정등에 관한 토의를 시작했다。

일본소식통들은 스즈끼수상이 이회담에서 趙紫陽에게 中·蘇관계의 진전여부를 물을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소련과 냉각관계를 지속하고있는日本은 中·蘇관계개선에 따르는 안보적 의미에 관심을 갖고있다고 전했다。

◇◇◇◇◇◇◇◇◇◇◇◇◇◇◇◇◇◇◇◇◇◇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드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보십시오
새 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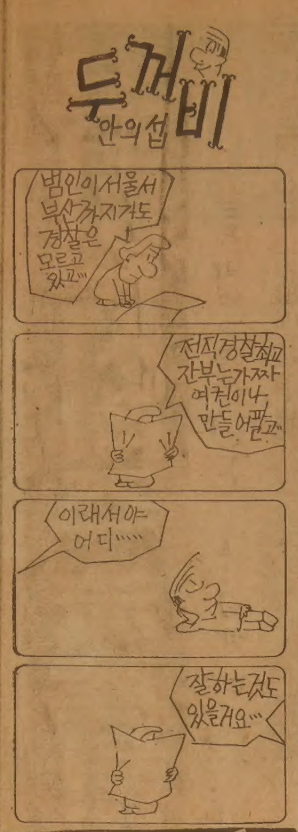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徐廷學 前治安局長 여권不正발급 알선

"1매 3만원" 67명에 팔아

手配 李澈씨등 4개派 18명 구속

여권신청서류를 위조하거나 미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등의 숫법으로 불법여권을 발급받게 해주고 돈을받은 여권사범 18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검중앙수사부는 27일 미스서울 李俞政양(일명 淳福) 납치소동이후 여권사범일제수사에 나서 한국불우자보호협회회장 徐廷學씨(65·전치안국장) 金陽雲씨(53·여권브로커·서울鍾路區齋洞84의22) 許一雄씨(47·번역업·서울龍山區厚岩洞192의15) 文吉씨(45·서적외판원·경기도坡州郡文山邑주공아파트6동403호) 등 4개파 18명을 여권법위반 공문서위조및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徐廷學씨 ◇許一雄씨 ◇文吉씨 ◇李鍾浩씨 ◇朴永煥씨 ◇李澈씨

검찰은 또 鄭相鎭씨(28·무직·서울東大門區中和2洞321)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0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불법여권발급에 사용된 위조재직증명서및출장증명서, 위조인장, 부정여권등 2백69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徐씨는 지난 3월24일부터 4월23일까지 朱昌郁씨(66·한일서도협회 한국지부장)를 통해 해외여행희망자 67명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불우자보호협회회원인것처럼 재직및 출장증명서를 발급, 여권을 부정발급해주고 1인당 3만원씩 모두 2백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불우자보호협회를 통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로 관광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나가뒤 일본등지에서 취업등을 이유로 귀국지않고 있는사람도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또 金陽雲씨는 지난6월28일부터 8월하순까지 국양실업, 경신산업등 4개회사와 짜고 무직인 오기억씨에게 무역회사 사원인것처럼 재직및출장 증명서등 여권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해 상용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케하고 1백2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27명으로부터 같은방법으로 모두 4천50만원을 받았고 許一雄씨도 지난6월2일부터 7월19일까지 서울鍾路區清進洞사무실에서 林예진씨(26·무직)로부터 상용여권발급을 부탁받고 신청서류를 위조, 미국으로 출국케해주고 30만원을받은것을 비롯, 35명에게 상용여권을 발급, 모두 1천7백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文吉씨는 李正錫(48·삼미이주공사 汶山지사사원·坡州郡泉峴面大陵里94)와 李澈씨(구속)를고용, 지난해 1월 최은희씨(27·여)를 미국인과 위장결혼시켜 이민여권을 발급해주고 5백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8명을위장결혼시켜 여권을발급해주고 모두 4천만원을받았는데이들은 위장결혼에 응해준 미군에게는 3천~5천달러를 사례비로 주기도했다.

한편 미스서울 李俞政양 가짜여권 출국사건과관련 수배중이던 李澈씨(52·경기議政府市議政府洞192의2)가 27일 검찰에 검거됐다. 李씨는 경기도漣川郡 漢灘江에서 낚시꾼으로 위장, 은신하고있다 붙잡혔다.

대검은 이들외에 여권위조 또는 변조사범을 계속수사, 오는11월중순께 종합발표할 예정이다.

구속된사람은 다음과같다.

◇金陽雲파▲金秉漢(42·국양실업대표·서울東大門區徽慶洞195의3)▲朴永煥(48·삼우T·서울永登浦區新吉1洞92의154)▲崔斗洵(42·서비스업·議政府市佳陵洞218) ◇許一雄파▲李鍾浩(48·무직·서울龍山區普光洞13의2) ◇文吉파▲李澈▲李正錫▲金容初(41·한국해외개발공사文山사무소직원)▲李在根(52·무직·서울城北區貞陵1洞455의47)▲최의곤(38·회사원·서울江西區禾谷洞 주공시범아파트12동2호)▲李雨賛(28·회사원·서울銅雀區上道2洞169의168) ◇徐廷學파▲朱昌郁 ◇기타▲朴潤奉(48·무직)▲張學純(48·남미이주공사 仁川지사장)▲金圭星(30·仁川지사사원)

銀行 털려했다

M16탈취범 釜山내려가 自首

仁川 M16 총기탈취범으로 경찰이 사진공개 수배했던 金浦瑄씨(22·무직·전과3범·경기安養市冠陽洞 75의31 果川연립주택2층5호)가 사건발생 3일만인 지난25일하오 7시께 부산中部경찰서에 자수, 26일새벽 수사본부가 있는 仁川경찰서로 압송된후 군수사기관에 이첩됐다.

金씨는 경찰에서 얼굴흉터때문에 자살하기위해 총기를 탈취했다고 말했으나 경찰의 추궁을받자 『은행을 털어 한탕하려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金씨는 지난 19일하오2시께 같은 교도소에 있다가 함께 출옥한 李모씨(水原市練武洞)를 찾아가 크게 한탕할것을 제의했으나 李씨로부터 『너는 운전을 잘하니 택시기사라도 하라』고 거절당하자 단독으로 범행할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6일새벽 부산에서 압송된 金씨와함께 서울永登浦區堂山洞堂山中앞 한강제방밑 샛강에서 金씨가 숨겨두었던 M16소총을 찾아 냈다.

金씨는 탈취한총기를 永登浦에서산 낚시가방에숨겨 한강변에묻고 서울汝矣島 반도호텔과 中區草洞 렉스호텔등에서 이틀밤을자고 고속버스로 부산으로 내려갔으나 도피기간중 단한번도 경찰의검문검색을 받은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金씨는 또 지난20일 KBS앞에서 청원경찰관 김영욱씨(37)의 권총을 뺏으려했던것은 물론, YWCA앞 주차장에서 레코드로열 승용차를 훔친뒤 金浦공항과 서울麻浦區望遠洞뒷길등 2곳에서 차치기를해 그동안 범행 및 도주경비로 썼다고 새로운 범죄사실도 털어놨다.

銃은 漢江邊서 찾아 ◇M16총기탈취범 金씨가 26일새벽 부산에서 서울로 압송돼 서울永登浦區堂山洞 한강제방밑 샛강으로 직행, 낚시가방에 넣어 숨겨놨던 M16을 꺼내고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馬山號 곧 돌아온다

北傀, 선원 35명도 釋放발표

北傀는 7월13일 鬱陵島동북방 1백70마일 공해상에서 납치한 東草어협소속 제5마산호(1백14·48톤·선장洪준원)와 선원35명을 곧석방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北傀는 이날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나 구체적인석방일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北傀는 지난7월 제5마산호 납북과 같은 시기에 납치해간 일본어선 3척에 대해서는 1개월이내에 석방한바 있으나 제5마산호에 대해서는 6일만인 7월18일 그들의 방송을 통해『정체불명의 선박 1척을 단속, 조사를진행중』이라고 밝힌채 70여일동안 불법억류해왔다. 【서울=聯】

光州사태 주동혐의 朴寬賢에 5년宣告

【光州】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27일하오 光州사태 주동자 朴寬賢피고인(30·전남대총학생회장)에대한 선고공판을열고 국가내란 중요임무종사및 계엄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작년9월22일 全南大 학생회관앞에서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하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全南大 졸업생 申永一(23·光州市北區斗岩洞444)피고인에겐 국가보안법 위반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聯合】

어린3兄弟 燒死

假건물 5坪짜리집에 불

부인家出비관 아버지도…放火인듯

26일 하오10시50분께 서울龍山區漢江路2街2 철도부지내의 5평짜리 가건물(주인 文鍾星·44·재건대원)에서 불이나 文씨와 아들 善求군(6) 岐求군(4) 永求군(2)등 한식구 4명이 모두 불에타 숨졌다.

이웃에사는 盧仁領씨(49·상업)에 의하면 文씨는 7년전부터 재건대원으로 일하다가 군에서앓은 동상이재발 지난해 20일께 국립의료원에서 오른쪽발목을절단하는 수술을받은뒤 부인 秋甲心씨(28)가 가출해버리자 이를 비관, 평소친구들에게 『집에 석유를 뿌리고 온가족이 자살하겠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주위사람들의 진술과 현장에서 석유냄새가 나는이불등을 발견, 세아들과 동반자살을 한것으로 보고있다.

버스·트럭衝突 10명 死傷

【大邱】26일하오8시5분께 경북安東郡河回面松川洞앞 국도에서 서울8아5414호 1.5톤 타이탄트럭(운전사 조휘철·37)과 경안버스 소속 경북5자2822호 시외버스(운전사 권영식·27)가 정면으로 충돌, 운전사조씨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시외버스에 타고있던 이말복씨(여·37·安東郡臨河面川前洞)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聯】

立體교차로서 直進 버스墜落 17명다쳐

26일 상오11시께 서울龍山區漢江路2街44 삼각지입체교차로 위에서 南營洞에서 三角地교차로로 진입하던 유성운수소속 서울5사7224호 시내버스(운전사 宋永述·41)가 난간을 들이받고 높이5m의 교각아래로 추락했다.

이사고로 운전사 宋씨와 안내양 金德順양(22) 승객 朴英子씨(42·서울鍾路區付岩洞345)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스·12人乘車충돌 運轉士등 6명死傷

【原州】26일상오10시20분께 강원寧越郡南面蒼院3里 승일검미소 앞길에서 강원여객소속 강원5아1877호 시외버스(운전사 김진상·33)가 마주오던 충북堤川市 청림실업소속 강원5라2191호 12인승 승용차(운전사 석순홍·50)와 충돌, 승용차에 타고있던 유시익씨(36·청림실업직원)가 숨지고 운전사석씨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聯】

刑事와 離婚女 旅館서 變屍로

서울鍾路경찰서 형사계소속 李斗鉉경장(46·서울江西區禾谷洞346의115)과 盧点順씨(46·여 中和흥게실주인·서울東大門區中和洞301의84)가 지난24일하오 11시30분께 서울江西區監倉洞 城山莊여관 206호에서 함께 숨져 있는것을 종업원 李모양(2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李양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낮12시께 여관에 들었는데 하오11시께 숙박부를 확인하기위해 방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盧씨는 상의만을 입은채 반듯이 누워 숨져 있었고 李씨는 TV안테나 줄을 창틀에 매고 목을 맨채 숨져 있었다는 것.

경찰은 사체부검결과 盧씨는 외상이없고 뇌출혈이있었으며 평소고혈압증세가 심해 다량의 약물을복용해온 점으로미루어 쇼크에의한 사망으로 추정하는한편 李씨는 盧씨가숨지자 자신도 자살한것으로 보고있다.

李경장은 지난79년 李씨가 서울麥陵경찰서에 근무할때 盧씨가 中和洞청소년선도위원회장을 맡았을때부터 관계를맺어왔는데 盧씨는 지난80년10월 이혼했고 李경장도 지난해 8월께부터 부인과 별거해와 그동안 내연의관계를 계속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仙人峰서 岩壁타던 女大生 强風속 자일 목에감겨절명

26일 하오3시40분께 서울 道峰山 仙人峰에서 암벽을타고 내려오던 金三榮양(20·同德여대 경영학과 2년)이 강풍으로 자일이 목에 감기는바람에 숨졌다.

金양은 이날 대한산악연맹 주최로 열린 등반대회에 참가, 상오8시30분께 정상에 오른뒤 대원3명과 함께 선인봉 외벽 오버행코스를 내려오다 하산지점 20m를 남겨놓고 기습적으로 불어온 강풍에 자일이 휘말리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獨立유공 李信愛여사 老患으로 어제別世

【大田】독립유공자 李信愛여사가 27일상오7시20분 충남大田시玉溪洞170의21 6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李여사는 일제때인 1918년 元山루시여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3·1독립운동에 참여한뒤 大同團의 비밀단원으로 활약했으며 義親王을 상해임시정부로 모시는데 참가하기도했다.

李여사는 이일로 일경에체포돼 3년8개월의 옥고를치렀으며 柳寬順열사와 서울西大門형무소에서 옥중만세운동을 벌이기도했는데 정부는 지난63년 李여사에게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을 수여하는한편 독립유공자로 선정,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聯合】

新安 유물선 引揚 올해 作業 마무리

【木浦】전남新安앞바다 宋元代 해저보물선 선체인양작업이 27일 올해인양작업을 마무리지었다.

문화공보부는 지난5월5일부터 작업에 착수, 올해안으로 선체 인양작업을 모두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 선체해체작업에 어려움이 뒤따라 3분의 2정도만 인양한채 이날 작업을 끝냈다.

발굴단은 그동안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및 잠수사 등을 동원, 모두 1천2백여점의 유물과 3천2백여점의 배조각등을 인양했는데 나머지 부분에대한 작업을 내년에 다시 펼계획이다. 【聯合】

교내示威 선동혐의 서울大生 1명구속

서울冠岳경찰서는 27일 서울大 치의예과2년 朴勝憲군(23)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朴군은 지난24일 하오1시께 서울大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4층 난간에서 유인물 3백여장을 뿌리고 핸드마이크로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있다.

成大生 4명도구속

서울東大門경찰서는 27일 成均館대학교 獨文科3년 李建洙군(21)등 학생4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22일하오 1시께 明倫洞캠퍼스 중앙잔디밭과 文科大앞에서 반정부 유인물1백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것이다.

前國會議員 林基奉씨

2대국회의원을 지낸林基奉씨(사진·木浦)가26일상오8시 서울恩平區鷹山洞177의148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7세. 유족으로는 미망인 金熙實여사(69)와 5남2녀가 있다.

영결식은 28일상오9시 서울상동감리교회(새로나백화점8층) 장지는 상동교회묘지 연락처 3512.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大田發 0時50分

驛구내 가락국수販賣員 李相永씨

「국물驛長」…"延着하면 신나요"

大田역 구내 가락국수 판매원 李相永씨(50·사진)는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손길이 바빠진다.

가락국수 국물의 간도 다시보고 앞에 놓여있는 40~50 그릇의 국수위에 파도 조금씩 더얹고 고춧가루도 더친뒤 국자를잡고 국물붓을 준비를한다.

기차가 홈에닿고 승객들이 2평남짓한 우동가게로 모여들면 익숙한솜씨로 국물을 그릇에붓는다.

李씨는 이런긴장된순간을 하루에 40여차례씩 맞는다.

식당칸이 있는 특급이 드물던 시절만해도 가락국수는 승객들의 유일한 요기 거리였기에 사랑은 대단했다.

李씨는 洪城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강생회에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일을 맡았다.

10여년이 지나는동안 만든국수는 줄잡아 2백만그릇. 하루 판매량은 7~8백그릇. 국수 한그릇을 마는데는5초정도밖에걸리지않지만李씨가 홍익회에 하루입금하는 액수는 李씨의 월급과 비슷한 20여만원.

10여년동안 국수값도 40원에서 50원, 70원등으로 다섯번이나 인상돼 현재는 3백50원이됐다. 가락국수를 만드는데 드는 재료는 13[illegible] 데 비용은 약 2백원정도.

많은 사람이 가락국수를 먹고 갔지만 기억나는 손님은 전 교통부장관 崔慶祿씨. 大田역에 순시를 올때마다 李씨가 만든 가락국수를 먹었고 太完善 前경제기획원장관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인스턴트식품의 원조격인 가락국수는 승객들의질이 고급화되고 부터 사양길을걷고있지만 독특한 국물맛은 알고있는 40이상의 고객은 끊이지 않는다. 열차가 연착이 잦던 시절에 비하면 수입도 줄고 낭만도없다.

李씨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기차가 연착하면 신이난다. 한때는 정각에 떠나는 열차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지만 이젠 모든기차가 정시에 떠나니 어쩔수없다.

멀고 지루한 여행에 지친사람의 출출한 배를 채워주고 국수국물로 해장국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李씨는 나름대로 긍지를느낀다. 모여들었던 손님을 태우고 기차는 꼬리를 감추지만 다음 열차가 손님을 태우고 오리라는 바람을 열차에 실어보낸다.

『현대인들은 전에비해서 여유가없이 조급해졌읍니다. 또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먹던 옛사람들과 달리 솔직하지만 얄밉도록 투정이 심한것도 두드러진 특징이지요』 【宋大洙기자】

한국국립무용단 공연

KOREAN NATIONAL DANCE COMPANY

캐나다
최초공연 !

10월6일(수) 오후8시
10월7일(목) 오후8시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입장권 : $16.50
$12.50
학생과 노인은
$2.50할인

판매처 : RYERSON BOX OFFICE (10시~6시)
☎ : 595~5088

10월4일 5일 몬트리얼 Theatre Maisonneuve • 10월9일 오타와 Chateau Laurier

RYERSON THEATRE
43 GERRARD STREET EAST

코리안·시리즈 流産위기

三星, 막판 2連敗 OB 1.5게임差 先頭고수

29일 大邱경기 OB-三星戰에 관심집중

프로야구

프로야구 82년 코리언·시리즈는 유산될가능성이 짙어지고있다.

창단첫해의 챔피언 타이틀을놓고 전·후기우승팀이 7전4선승제로 최종패권을 겨루는 코리언·시리즈는 3억여원의 흥행수입을 생각하는 프로야구관계자들이나 멋진 한판을 기대하는 팬들에게 큰 관심거리.

그러나 OB베어스와 함께 후기리그선두를 다투던 三星라이온즈가 주말경기서 잇달아 발목을잡혀 코리언·시리즈는 빛을보지못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전기리그 우승팀인 OB가 26일 해태와의 경기서승리, 27승11패를 마크한데반해 三星은 MBC靑龍에연패, 25승12패로 물러서 선두OB와 三星은 1·5게임차로 벌어졌다.

OB는 앞으로 對MBC、三星의 2게임을 남겨놓고있고 三星은 對三美、OB、MBC전등 3게임을 남기고있다.

OB가남은 2게임서 모두 이기면 29승11패로 후기리그 단독우승이 확정되고 따라서 전후기리그우승팀이 벌이는 코리언시리즈는 자동적으로 유산된다.

또 OB가 2게임 가운데 한번을 진다하더라도 三星이 한번만 패한다면 OB가 28승12패, 三星 27승13패로 OB의 우승이 결정된다.

그러나 코리언·시리즈의 한가닥 가능성은 남아있다. OB가 모두패하고、三星이 잔여3게임서전승하면 三星이 후기리그 우승팀이돼 OB와코리언·시리즈를 갖게된다.

또만약 남은경기서 OB가 1승1패를하고 三星이 3승을하거나、OB가 2패를 할 경우 三星이 2승1패를 하게되면 양팀이 동률이돼 후기리그의 우승결정전(3게임)을 갖고 코리언·시리즈까지 밀고갈 가능성도있다.

三星으로서는 MBC가28일의 경기서OB를 잡아준다면 막판역전우승의 희망을걸 수있으며 OB가MBC를물리친다면 29일大邱서 열리는對 OB전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보고 이대전에 총력을 기울일것으로 보인다.

◇두팀의 남은 勝敗비교

팀	현재승패 승률	잔여경기	1승1패	2패	2승	2승1패	3승
OB	27승11패 0·711	MBC 삼성	28승12패 0·700	27승13패 0·675	29승11패 0·725		
三星	25승12패 0·676	삼미 OB MBC	26승13패 0·667	25승14패 0·641	27승12패 0·692	27승13패 0·675	28승12패 0·700

◇중간순위 (27일현재)

순위	팀	승	패	승률
①	OB	27	11	0·711
②	삼성	25	12	0·676
③	MBC	23	15	0·605
④	롯데	16	18	0·471
⑤	해태	14	22	0·389
⑥	삼미	5	32	0·135

中共、페루꺾고 우승

한국7위 日은 美에져 4위

세계 여자배구

【리마(페루)＝聯合】中共은 26일(한국시간)폐막된 제9회 세계여자배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서 홈팀 페루를 3－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3·4위전에서는 美國이 日本을 3－1로격파, 3위를 차지했으며 쿠바와 蘇聯간의 5·6위전서는 쿠바가 3－2로 힘겹게 승리했다.

한편 트루히요市에서 마지막 경기를 가진 한국은 브라질을 1시간10분만에 3－0으로 물리치고 7위를 마크했다.

한국은 지난 67년 제5회 세계선수권대회(日本)에서 처녀 출전하여 3위를, 74년제7회(멕시코) 3위, 78년 8회(소련) 대회에서 4위를 거둔이래 가장부진한 성적을 올렸다.

◇최종일전적

▲결승전
중공 3 (15─11 15─5 15─1) 0 페루
▲3·4위전
미국 3─1 일본
▲5·6위전
쿠바 3─2 소련
▲7·8위전
한국 3 (15─10 19─17 15─11) 0 브라질

▲하위순위＝⑨불가리아⑩헝가리⑪캐나다⑫호주⑬멕시코⑭서독⑮이탈리아⑯네덜란드⑰푸에르토리코⑱아르헨티나⑲파라과이⑳스페인㉑인도네시아㉒칠레㉓나이지리아

21연속 KO勝

白仁鐵、比선수제압

프로복싱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주니어미들급챔피언 白仁鐵(21)은 26일 大邱실내체육관서 벌어진 10회전경기에서 프레디·갈람(OPBF 웰터급 5위)을 3회2분35초만에 KO로 물리쳐 프로데뷔이래 21연속 KO승을 기록했다.

단장에 金鍾烈씨

총감독 金晟集씨

印度 아시안게임

대한체육회는 오는 11월19일 개막되는 印度아시안·게임에 한국선수단단장에 金鍾烈 대한체육회부회장을, 총감독에 金晟集 泰陵선수촌장을 선임했다. 그리고 단장보좌역에 朱踏鉉사무총장을 임명했다.

北韓 李종현優勝

北京 국제마라톤 2시간 14분43초

【北京AP＝聯合】북한의 이종현(27)은 26일 제2회 北京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14분43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19개국 1백82명의 선수가 참가한가운데열린 이대회에서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라스테요(22)가 2시간15분51초로 2위를, 북한의 소창시이 2시간16분55초로 3위를 차지했다.

메아리

死亡率

통계의 詐術을 말할 때 자주 쳐들리는 例가 있다. 금세기초엽 미국 해군이 냈던 募兵광고의 경우다.

그 광고는 『뉴욕시민보다 미국 해군이 더 안전하다』고 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898년의 미국－스페인 전쟁기간중, 미국 해군장병의 사망률은 1천명에 9명꼴이었다. 이에 대하여 뉴욕 시민의 사망률은 1천명에 16명에 이르고 있다.

이 통계의 흠은 비교할수 없는 집단을 비교한데 있다. 해군은 선발된 건강한 젊은이 집단이지만, 뉴욕 시민은 많은 늙은이와 유아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인구집단의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은 노인과 유아다. 그러므로 뉴욕시민의 사망률이 해군보다 높을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만일 엄밀한 통계학적 비교라면, 해군 장병과 같은 연령층의 뉴욕 시민을 따로 떼내 비교했어야 옳다.

통계는 이렇게 사람을 속인다. 그러나 이글의 관심은 그런 숫자의 속임수가 아니다. 다음 숫자는 미 해군의 광고와같은 사망률 통계지만, 속임수는 들어 있지 않다.

서울에, 9천3백70명의 한 집단이 있다. 55세이하의 건장한 남자들만의 집단이다.

이들중 45명이 작년 한햇동안 교통사고로 숨졌다. 교통사고 사망률, 또는 職務사망률이 1천명에 약 19명꼴이나 된다. 1천명에 이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미국해군에 들어가 參戰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집단은 서울시 街路청소원이다. 서울에서는 작년 한햇동안 1천74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서울시 인구를 8백50만명 잡고, 1천명에 0·12명꼴이다.

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街路청소원것과 비교한다면, 앞서의 미국 해군과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두 수치를 비교하여, 街路청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짐작이 갈듯하다.

그러면 다음 수치는 어떤가? 서울에는 職警을 포함하여 2만4천명의 경찰관이 있다. 이집단은 거의 55세이하의 건장한 남자로 구성된다. 이 집단에서, 작년 한햇동안 11명이 순직했다. 1천명에 0·46명 꼴이다.

이 수치는 街路청소원과 비교해서 별로 흠될 것은 없을것 같다. 비슷한 집단의 비교니까.

경찰관이 겪는 과로와 위험은 누구나가 짐작한다. 그들의 노고는 백번 治賀를 받아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그들보다 職率이 45배나 높은 서울시청소원의 처지를 시민들이 기억했으면한다. 더구나 그들의 교통사고死는 79년 ?, 80년 ?명에 비하여서도 늘어나고 있음을….

서울의 街路청소원은 한사람이 5백35m의 거리청소를 담당한다. 작년보다 95m나 늘었다. 일은 동트기 전에 시작된다. 교통사고는 거의 다 새벽녘 과속차량 소행이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에 웅크린채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종일 거리를 쓴 하루 일당이 5천2백20원.

안된 말이지만, 받는게 워낙 적다 보니 「목숨 값」 또한 싼 것이 청소원이다. 교통 사고로 순직해야 서울시의 보상금은 1천日분의 봉급을 기준하여 7백20만원이 고작이다.

잊혀진 그들에게 街路청소원들은 가을이 괴롭다. 이제 가로수가 낙엽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일은, 쓸고, 또 쓸고, 한정없이 늘어난다. 낙엽지는 소리, 낙엽을 밟는 風情은 오가는 시민들만의 것이다.

그런 가을이 가면 추위가 온다. 길거리 街路등을 쓸어넬고 역이 기다린다.

어찌 街路청소원 뿐일까. 서울에는 주택가의 쓰레기收去員을 합쳐 9천3백명의 청소원이 있다. 속없는 사람들의 말투를 빌면, 이들은 「그야말로 「평가」도 못받고 「전망」도없는 직종에 종사한다고 할지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있기에 서울은 이만큼 깨끗하다.

흔히 듣는대로 외국관광객들은 서울거리가 깨끗하다고 한다. 그말이 기껍거든 청소원을 기억해야옳다. 올림픽을 앞두고 가로수를심자고 말할자격은 그들을 기억하는 이에게만 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들처지를, 서울의 청소행정 책임자만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金昌悅 〈編輯委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2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⑳

오목이는 일환이를 끔시켜 피울리는 사람취급하듯 조심조심 다루며 마음아파했다.

「여보, 용서해줘요. 네, 여보 용서해줘요.」 그녀는 잔뜩 그의 머리를 안고 소근댔다. 그리고 상처에 입맞추듯이 그의 이마와 뺨에 입술을 다두려워하며 한편 정성을 다해 맞추었다. 손등과 가슴에도 입을 맞추었다. 오목이 보기에 그는 만신창이었으므로 입맞추고싶지 않은데가 없었다. 아픔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

새벽에 일환이가 뒤채는 소리에 오목이는 눈을떴다. 어둠속에서 일환이의 기척이 괴롭게 뒤채고 있었다. 살동네로 이사오고 나서 밤이면 혼자 뒤채던 그의 버릇이 도지긴 처음이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가 뒤는 어둠속에서 아기가 어디론지 떠내려갈 것같아 꼭 껴안았다. 그가 뒤챌때마다 그녀는 도마위에서 죽어가는 잉어의 빛나는 비늘을 보고있었다. 슬픔과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 그가 제풀에 몸부림을 가라앉히고 죽은것처럼 잠잠해지자 그녀는 아기를 한구석으로 밀어놓고 아침밥을 지으러 나갔다.

부엌엔 백날잔치의 찌꺼기가 아직산적해 있건만 그녀는 행복했던 날이 돌이킬수 없는 지난 날이 돼버린 것을 느꼈다.

그녀는 늙은 여자처럼 자신있는 불행을 예감하고 한숨을 쉬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난 그는 딴사람처럼 핏발 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고, 그녀와 아기의 아빠 빠이 빠이에 대답하지 않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햇빛속을 우쭐우쭐 걸어가지않았고 도망치듯 달아났다.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않았다. 살동네로 이사오고나서 처음 외박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외박은 땅속집에서처럼 한달씩이나 가진않았지만 어쩌면 한달씩가는 것보다 더 나빴다.

이틀에 한번이나 사흘에 한번씩 술이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와서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세간살이를 부수기도 하고, 어린네를 차기도 하고 아기를 구박하기도 했다. 때로는 내가 죽일놈이야, 내가 죽일놈이지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오목이에게 안기는 적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한가닥의 미미한 희망이나마 버리지않고 시작한 그짓은 번번이 사랑의 행위가 되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가득찬 고통을 쏟어보려는 일방적인 가학행위로 끝났다. 마치 숨고 죽이는 것처럼 격렬하고 절망적인 그행위로 오목이를 걸레가 되게 한바탕 짓이기고난 일환이는 거품처럼 짧고 허망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버는 돈은 다 술만 먹어없애는지 집엔 한푼도 들여오지않았다. 점점 더 못돼져서 나중엔 오목이가 모아놓은돈까지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애면글면 모은돈을 야금야금 빼앗기면서도 그녀는 거의 아까운줄 몰랐다.

그녀는 일환이의 그동안의 천연덕스러움이 얼마나 힘겹게 꾸민 것이었던가를 알고있기때문에 그게 허물어지고 본색이 드러나니까 차라리 마음 편했다.

역시 그가 먼저 참아내지 못했어, 그에 비하면 자신은 얼마나 독하고 교활한가? 그녀는 허물어져가는 그보다 아직도 천연덕스러울수있는 자신이 더 정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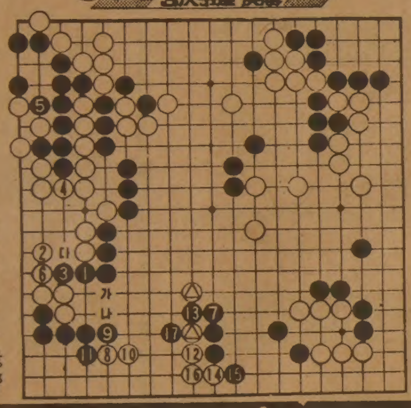
미안은 아무데도 없었고, 생활은 날로 황폐해갔다.

한국일보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3局第6譜 (1〇1~117) (각4시간·덤5집반)

白 (7段) 鄭 昌 鉉
黑 (4段) 李 相 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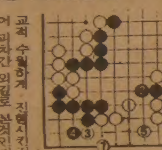


李4단은 黑1을 25분이나 숙고했다. 전보에서 형세를 역전시킨 우선 눈에 띄는것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우변 白대마다. 그리고 다음은 하변 黑세를 삭감한 스표2점. 이두곳 白을 양곤마로 만들어 일거에 승리를 굳히고 싶다. 그러자 좀허술해 보이는 「가」「나」의선부터 확실하게 봉쇄해야 된다.

白2는 일단 黑의 봉쇄를 피한것. 이수로 3자리를 막으면 黑은 「다」자리를 강력하게 찌고 그외곽을 선수로 봉쇄하게 된다.

黑7이 결국 신랄한 공격수가 되었다.

下邊 白馬危機



黑7을 당하면 白은 8이하 16까지 제자리에서 근거를 잡아 보았어도 어려운 고비인데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시킬것으로 미루어 괴차간 외길로 본것이 실수였는데 실은 白16에 대해 국후에 약간의 이론이 생겼다. 「16으로 자고 처럼 살아버려야 간명했다」

하지만 대국심리는 아무래도 강경한면으로 치닫기쉽고 또 黑7단지신범일은 없을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黑17을 당하자 문제는 심상치 않게되었다. 【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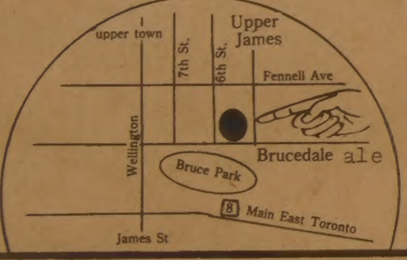
"해밀톤에 한인식품점이 생깁니다"

교포여러분, 특히 HAMILTON거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는10월 초순께 **해밀톤 서울식품** 을 **OPEN** 하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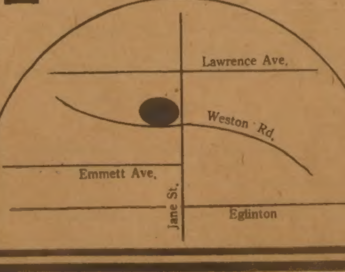
성심성의껏 **저렴한 가격** 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있 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톤·서울식품이 OPEN될 때까지 **서부 서울식품(☎ : 243-9544)** 에서 **전화 주문시 배달** 하겠사오니, 아무리 적은 주문이라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해밀톤·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1－385－1485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웨스톤)
☎ : 243－9544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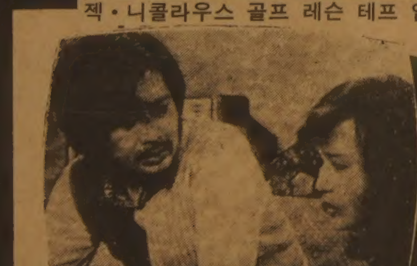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여름을 시원하게

젝·니콜라우스 골프 레슨 테프 입하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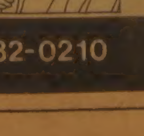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Richard Y.K Wong
Insurance Broker

● 보 험 ●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왕

한국인 유일의
야채·과일·화초 도매상
◉각종 Plant
◉저렴한 가격
◉품질 보장
463 Carlaw Ave.(at Gerrard)
전화 : 465-8167 대표 곽 덕 렬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데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합.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Cashier 구함(남)
남자학생으로 Part Time원하시는분 환영
900 Queen St. E.(at Logan Ave.)

파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남녀불문)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261－2978, (R)752－9332 리

남자 웨이터 급구
628 Bloor St. W.

성실한 Full Time 여자 캐시어 구함
제랄드 & 콕스웰
전화 : 465－6885

식품점에서 일하실 건장한 남자분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1054(제일식품)

여자용 코트등 의류품 만드는 회사에서 양재 또는 재봉일에 경험있으신 분 약간명 모집.
★ Sewing Machine Operators
★ Cutters ★ Pressers
Irving Posluns
637 Lakeshore Blvd. W.
Call 591－7128
Evening After 7시 270－1981(Mr. Arbour)

Dunut Shop에서 일할분 구함.
시간: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Sunday Night부터 Friday 오전 8시까지. 전화 : 482－4088

Leading clothing manufactures requires payroll clerk to calculate and record weekly piece work payroll. Apply: 637 Lakeshore Blvd. W. Tor. Tel: 591－7161

가정교사 하실분(하루3시간씩 － 주5일)
(7살, 9살) 전화 : 762－1572

집에서 일하실 할머니 급구
(숙식제공) 전화 : 762－1572

Hamburger식당 Carhier구함 착실하고 영어 잘하는 여자분 7:00a.m.－3:00p.m.까지 Take out.
전화 : 274－7010 Mr. 유.

일본음식 겸 중국음식 요리사 구함(미시사가)
전화 : 274－7010 Mr. 유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German－Canadian(백인)으로 37세임.
한국인 여자친구 원함.
전화 : 1－727－6490(Gert)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82－6223 (집)
839－8438 (가게)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Steel & Pharmacy)
전화 : 496－1664 Mrs. 리

입주하셔서 8살된 여자아이 보아주시고
가사일 좀 살펴주실분 구함.
전화 : 624－5897

매매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10월, 11월은 토, 일, 공휴일 Open(시간 오후1시~6시)
◉판매방법: 칼과 Box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뽑아가십시요.
◉채소종류: 배추, 각종무우(김장용)
◉장 소: 에그린톤과 Hwy 10에서 서쪽으로 1 마일 가면 두번째 라인 있음. 여기서 북쪽으로 500m가면 농장이 나옴.
◉연 락 처: 622－5509. － 미시사가 농장 －

건물 & 비즈네스 매매
(1) 매상 4,500 이상(W)
아스킹: $155,000(Hamilton)
(2) 매상 4,000－W.
아스킹: $99,000(Toronto)
전화 : 535－0028 Mr. Kim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토론토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Mall안에 있는 장소. 2,500 sq.ft. 단, 하드웨어 비지네스 하실분만 문의바람.
전화 : 486－0397 김.

가정형편으로 급매. (Grocery Store)
(스카브로 지역) 좋은 조건으로 팔고자 함.
전화 : 431－0979

Variety Stores
1. Ajax: W.T.O: $7,000 Rent: $1,260(M.)
리스: 6 years+5 years, 1,800 sq.ft. Asking: $75,000
2. Oshawa: W.T.O.: $8,000 리스: 6 years, Asking: $60,000
3. Oshawa: W.T.O.: $3,500, 리스: 6 years, 렌트: $500
아스킹: $29,900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uilding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넓이: 2500 sq.ft. Open한지 10개월 정도됨
윗 Building에 간호학교가 있음. 갑작스런 형편으로 발전이 대단히 기대되는 곳이나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 함. 아스킹: $20,000+스탁(네고.)
단, 모두 Cash 요구. 1－525－2928 (Mr. 엄)

건물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000 별도 입구된 2개의 2Bed Rm.Apts. Mortgage는 주인이 인수함.
Sincere Realty Inc.
R: Better Call Before 9:00a.m. 444－0674
B: 497－8900

Etobicoke Plaza
3 Brick Stores, Offices own 2nd floor.
151 Foot Deep lot. Lots of Parking.
Asking : $265,000
Call Doris Buru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1)주소 찍는 기계
(Addressergrapher Multigrapher)
◉ 최고속도 시간당 5천개
◉ 철판 Plate 사용
◉ 전기로 가동
◉ 가동비 저렴
◉ 사용 간편
(2)Grapher Typer
Plate에 주소를 만들어 넣는 타자기
전화 : 533－2361

Store for Sale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Lambton Gift & Variety 763－7317

Snack Bar Donut Shop &
Video Machine for Sale. 767－3301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Grocery & Variety Store매매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함
전화 : 469－3708(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성능좋은 중고 피아노 팝니다.
(아파트싸이즈)
전화 : 665－8233, 636－1430

Italian Fish Business for Sale.Eglinton & Keele
Good Condition. 10 years Lease. Rent : $280/M.
653-1725(Tues.-Fri.)Vito 242－3818(월)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3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차매매

77년 Chevy Malibu 2 Door, 49,000 mile,
Air－Con, AM－FM 카세트 $2,300 A－1 Cond. Certify.
전화 : 267－4770 Mr. 권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Ossington Subway 근처〉
2층 one bed Rm. 유지비포함 $350/M.
지하실 유지비포함 $150/M. 전화 : 531－3656

Victoria Subway 건너편 (Condominium)
3 Bed Rm. $700/M.(유지비 포함)
전화 : 698－1347 694-4812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윈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일요일 쇼핑**오시면 (100불이상) (쌀·라면·배추·무우는 계산서제외) **25% 할인**, 즉석에서 **현금**으로 **25불** 드립니다. (오후 4 시부터 OPEN함) 한번 와보세요. 돈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동안 **비데오 테프**도 **FREE RENT**해 드립니다. (단3일간 무료)

⊙**쌀·삿보로라면**(24개)·**배추 무우 도매가**로 드립니다.

⊙**햇조기·물오징어** 박스로 사시면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순한국산>

	SPEC.	
당 면	~~$2.99~~	$2.59
냉 면	~~$1.09~~	.79
엿 기 름	~~$2.75~~	$2.29
메주가루	~~$2.99~~	$2.59
보 리 차	~~$1.95~~	$1.55
미 역 :	~~$3.99~~	$1.99
국 수	~~$1.09~~	.69
김(특상)	~~$18.95~~	$13.95

※새우젖, 멸치젖, 황새기젖, 어리굴젖, 육쪽마늘, 생강, 생굴등 김장(양념)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다.

※ 9 월호 신간잡지 판매

샘터, 여학생, 현대문학, 신동아, 문학사상, 주부생활, 여원, 여성동아 등 인기리에 판매중.

⊙Hwy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파킹장이 있으며 언제나 FREE입니다. 401에서 400 NORTH로 오시다가 FINCH WEST로 빠지면 401에서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읍니다.

⊙삼복식품점은 품질이 많이 향상되고 써비스가 날로 개선되고 있읍니다. 한번 들려 주세요. 꼭!!

삼복식품 김규석 올림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WESTON

☎ : 743 — 8270